

성도의 빛 1

1975



영감의 메시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영감 인간의 영이 영원한 것처럼 사랑도 영원합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하듯이 사랑도 끝나는 날이 없이 지속됩니다...

지상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 보게 되며, 지상에서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아내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나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모든 인류를 간절히 돕고 싶으나 병든 어린 아이의 고통스런 모습이나 죽어 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 본 아내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한 경험은 마음과 마음을 맺어 줍니다. 이렇게 함께 맺어진 마음은 죽음으로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되시는 여러분께서는 내세에서도 아내를 알아 보게 될 것이며, 지상에서처럼 그곳에서도 아내를 사랑하게 되며, 부활한 가운데서 영생의 새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사랑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죽음이 여러분을 분리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며,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도록 합당하게 권능을 받은 자가 결혼 의식을 집행하는 주님의 집에서 맺어지는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한 사람의 가족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것이 신전을 세우는 목적의 하나입니다. (스위스 신전 헌납식 말씀에서 발췌함) ㉮

순서

	영감의 메시지	데이비드 오 맥케이
2	신전과 영원한 결혼	스펜서 더블류 김볼
6	신전 설계	
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전	
14	왜 신전을 지을까요?	고든 비 힝클리
17	물문일지	
20	꽃	마리아 윌링
21	신앙	
22	모든 회원은 선교사임	
24	심심풀이	
26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29	매튜 카우리	
32	개종 이야기	화비오 클라비오
35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호이트 파머
37	엘리아의 권세	데오도르 엠 버튼
39	소년에겐 성인 남자가 필요합니다.	매리온 디 행스
43	무덤에서 삼일	엘드레드 지 스미스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앨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5년 1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14호

발행인겸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4-6832

발행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건수

정가

1권 150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1200원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7불

필리핀, 월남, 라오스, 태국,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아시아 18불

선박 3불

번

월간

성도의 벗

제11권 제1호 1975년 1월호



신전 결혼은 죽은 후에도 시간을 초월하여
지속되는 영원히 깨뜨릴 수 없는 성약이다.

신전과 영원한 결혼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영원 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간의 존재가 종식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인간은 선하건 악하건 모두 부활합니다. 그의 영은 무덤 속의 육신과 재결합을 하게 되며, 그가 그의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다면 그의 영과 육신은 결합되어 새롭고 깨끗하고 영원한 불멸의 상태로 됩니다.

참된 결혼 생활의 큰 기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영원한 결혼을 통해 성스러운 유대로 인봉된다면 성스러운 가족 관계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발전은 끝이 없게 되나, 이러한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잘 알려져 있고 매우 분명합니다. 영원한 결혼은 아담과 그외의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졌으나 수 세기 전에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회복해 주셨고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복음이 회복되면서 거룩한 신권이 함께 회복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자에게 아담, 아브라함, 모세 기타 초기의 사도들이 지녔던 모든 열쇠와 권능과 권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전에 관한 지식과 이를 세우는 목적도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주님의 특별한 사업을 위해 도처에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신전에서는 합당한 권능을 소유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맺어 주는 인봉 의식을 집행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속주가 말씀하신 신비 중의 하나로, 그

분은 비유를 통해 무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3:35)

경전을 주의깊게 읽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구절의 값진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좇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11, 14)

지식이 많고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위대한 특권을 무시하거나 고의로 저버리는 것은 참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문은 열릴 수가 있으며 그러한 간격도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결혼 관계를 영원히 이끌면서, 끝없는 행복을 향해 안전하게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뜻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태복음 13:11, 15)

옆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제자들에게 구세주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마태복음 13:16-17)

주님께서서는 성실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왕국의 신비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여 구세주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위선에 찬 사두개인이 던진 질문에 주님께서 하신 대답을 우리는 상기할 것입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세째도 그렇게 하였으며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묘한 질문이 던져졌던 것입니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 날 때에 그중에 누 아내가 되리이까”(막 12-23) 이에 대한 구세주의 대답은 간단명료했고 조금도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마가복음 12-24)

우리는 여러분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세주의 말씀에서 비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는 사두개인들에게 “감은 눈을 뜨고 보라.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해 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제 여러분께서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암시적인 뜻과 진리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전에서는 이 말씀의 뜻이 다소 장막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현대의 제사를 통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박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매우 분명합니다. 부활한 상태에서 그 여인의 남편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바가 없는데, 이는 첫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 여인과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만 결혼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후에는 결혼을 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결혼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관계를 인봉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성신권의 권능으로 부활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예수

그리스도, 548페이지)

틀림없이 첫번째 남편이 현세에만 국한되지 않는 영원한 결혼 의식을 그 여인과 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 후 다시 남편을 만날 때까지만 미망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죽음으로 끝날” 결혼을 제2의 남편과 하게 된 것이며, 자녀들을 두었을지라도 이들은 헤어져야만 합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없이 혼자 장막을 통해 영의 세계로 가야 하는데, 이는 그들의 결혼 관계는 죽음으로써 끝나기 때문입니다. 제3, 4, 5, 6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남편도 모두 현세에만 그치는 일시적인 결혼 관계를 그녀와 맺은 것입니다. 죽음은 그들이 간직해 온 행복과 장래에 대한 축복의 소망을 송두리째 앗아 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우울한 일입니까?

나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라는 말로 결혼식을 마친 어느 부부가 한 시간 후에 교통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예를 보았습니다.

일반 결혼은 지상을 사는 동안만의 계약 결혼으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죽게 될 때 결혼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영원한 해의 영광의 결혼은 남녀가 맺는 성스러운 성약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열쇠를 지닌 종이 성스러운 신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죽음을 초월하여 지속되는 것으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 우리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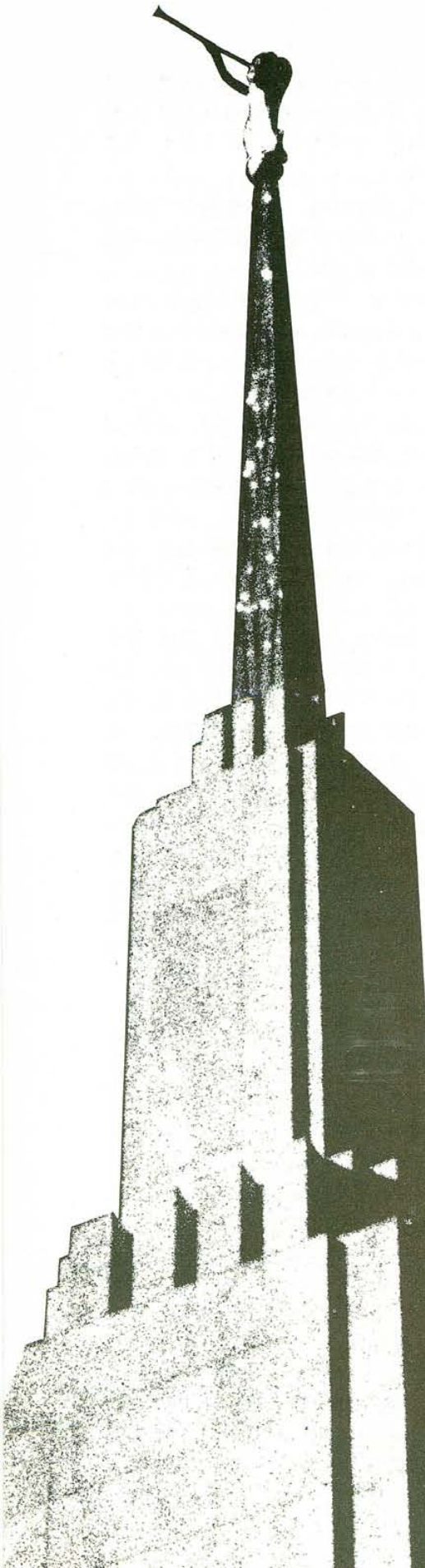
“만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고 결혼 생활의 기쁨을 누리며 가족 생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리라.”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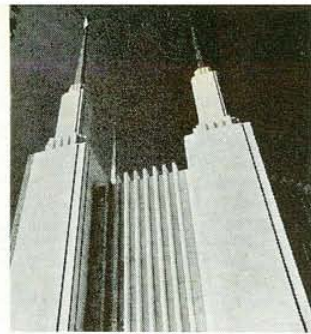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고전 15:40-42)

바울은 많은 성도들이 이해한 바와 같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였으나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비유에 담긴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의 처소만이 있는 것이 아니



신전 설계

대관장단의 지시를 받은 건축가들은 합당한 설계를 구상해 내기 위해 온갖 힘을 다 기울였다.



이 “말일성도 건축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건축가로서 프로보 신전과 옥든 신전을 설계한 에밀 비 웨쳐 형제의 말씀입니다. 와싱턴 신전을 설계할 건축가를 최초로 선정한 웨쳐 형제는 해롤드 케이 비쳐, 헨리 피 웨쳐, 프레드 엘 마크햄, 케이드 더블류 윌콕스 형제를 대관장단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네 형제들은 전에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없었지만 기꺼이 신전 설계에 관한 책임을 받아들였고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팀워크를 이루었으며, 개개인이 받은 영감을 하나로 조화시켜 주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설계도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대관장단은 프로보 신전과 옥든 신전의 기능적인 면의 장점을 살려 이들에게 와싱턴 신전도 똑같은 단일 의식실 계획안(해의 왕국실 주위에 의식실이 배치되게 하는 계획)을 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신전을 아름답고 깊은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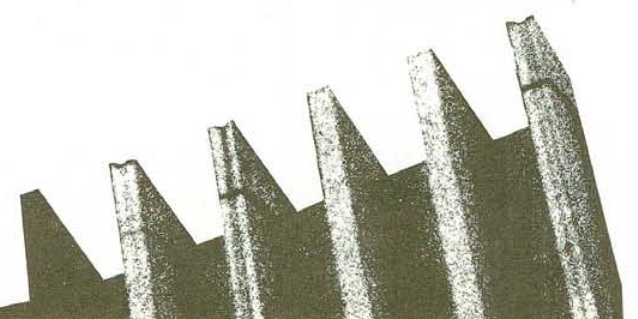
이 담기는 눈에 띄는 건물이 되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마크햄 형제를 위원장으로 하여 일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정신은 그들이 택한 두 가지 절차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계획 모임이 시작되었으며 찬반 투표 제도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완전히 일치점에 도달할 때까지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설계도를 그렸으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편집하고 종합하였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교성 9:8)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었고 이것을 서로 함께 나누며 상의하였습니다. 토론과 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의 설계도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신전과 닮은 여러 탑이 있는 구조가 채택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형의 6각형 설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정원회가 이 설계도를 승인하였을 때 이들 건축가들은 그들의 노력과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전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습니다. 무겁고 육중한 벽이



주는 중압감을 잃지 않고 자연 채광이 신전 안까지 들어 오게 하기 위해서 투명한 대리석 창이 설계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견고한 벽이라는 느낌을 주나 안에서 내다 볼 때는 찬란한 색깔의 큰 줄무늬가 드리워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동편과 서편 끝의 창문은 특별히 아름다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은 일 인치 두께의 채색 유리로 되었으며, 보다 많은 빛을 굴절시키도록 끝이 깎였습니다.

창틀은 그 폭이 2.1미터이며 땅에서 신전 꼭대기까지 길게 아름다운 색과 햇빛의 조화를 이루며 내려 뻗어 있습니다. 땅쪽으로 내려 가면서 길고 격동하는 듯한 붉은색과 오렌지색으로 장식되었고 위쪽으로 올라 가면서 밝은 색감을 주는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단장되었으며 꼭대기는 흰색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헨리 웨처 형제는 이처럼 색깔이 바뀌는 것은 인간이 세상사를 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할 때 그의 생활 속에 찾아드는 순수함과 맑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부의 색깔에서도 역시 변화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짙은 푸른색의 호두나무 창틀과 양탄자는 황금색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점점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흰벽과 흰 천장으로 된 해의 왕국실에는 연한 황금빛 양탄자가 깔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나무만이 유일한 다른 색을 갖고 있게 됩니다. 정문과 북쪽 입구의 부속문도 특별히 설계되어 제작되었습니다. 말

일성도 조각가인 프란츠 요한슨이 제작한 여덟 개의 동판 메달은 복두칠성과 북극성, 지구, 흑성, 달, 별, 영원을 상징하는 동심원, 전통적인 신전 해 얼굴, 일곱 경륜의 시대를 상징하는 동심 5각형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모두 창조와 지상 생활과 영광의 등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신전 남쪽에 위치한 반사식 풀은 길이가 32.3미터이고 너비가 15.9미터로 신전 모양처럼 다이아몬드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쪽 숲으로 통한 길에서 볼 때 이 풀장의 물은 장관을 이룹니다. 양편 끝에 솟아 있는 두 개의 큰 탑은 전통적으로 벨기세텍 신권과 아론 신권을 상징합니다. 벨기세텍 신권을 상징하는 탑은 다른 탑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 건물에 끊임없이 살아 생동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탑은 모두 그 높이가 일정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1내지 1.5미터의 차이를 두어 생동하는 느낌을 살렸습니다. 헨리 웨처 형제는 “그 설계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나타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와싱턴 신전 지방부는 푸에르토리코와 몬트리올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므로 의식실의 반수에 헤드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는 스페인어와 불어를 통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다른 많은 외국어까지도 통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조용하며 위엄이 깃든 신전을 지으려고 건축가들은 노력

을 기울였으며,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 느낀 바를 진지한 태도로 교환하였습니다.

윌콕스 형제에게는 신전이란 교회의 모든 정신을 한 마디로 요약해 주는 교회라는 말의 시각적 상징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전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하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매우 겸허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크햄 형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신전을 짓는 일에 큰 관심을 가져왔으나 이 신전 건축에 참여함으로써 신전 사업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게 되었으며, 신전 의식에 맞는 설계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할 많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처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더욱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헨리 웨처 형제는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신전에 들어 가서 그곳의 훌륭한 장식을 살펴 보고 선조들이 개척자로서 어떻게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신전을 짓는 데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신전에 살아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 행해진 사업을 목격할 수 있도록 세상을 떠난 영예로운 영이나, 주님의 천사나 주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전

이달 성도의 벗을 위해 특별히 촬영된
말일의 경륜 시대의 16개 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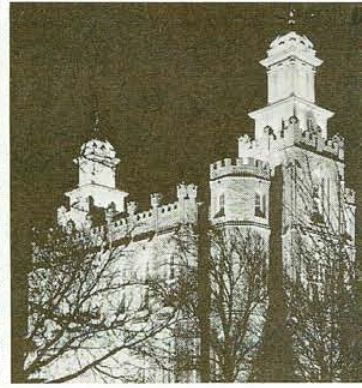
커틀랜드 신전



나부 신전



세인트 조오지 신전



로간 신전



우리는 “신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신전은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교성 88:119)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복음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단 한 가지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특권을 누리게 될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이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어졌습니다.

신전에서 우리는 산 자를 위한 의식과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집행

합니다.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의식은 우리의 사랑처럼 영원한 것이며, 삶처럼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이러한 의식을 통해 산 자나 죽은 자가 모두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거하게 됩니다...

결혼 성약이 영원하다는 것은 영예로운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사랑으로 다짐되고 성신권의 권능으로 인봉된 영원한 부부의 마음에 확신을 안겨 줍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6년 3월, 141-42페이지)

“복음이 제시하는 모든 의식은 다 신전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침례, 신권 성임, 결혼, 산 자와 죽은 자의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 의식,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복음의 가르침, 선교 사업을 위한 토론, 기타 복음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곳

에서 행해집니다. 참으로 신전에서 복음의 모든 의식이 나타내집니다.”

존 에이 윌스

(“신전을 바라보며” 엔사인, 1972년 1월, 58페이지)

커틀랜드 신전

초기 미국 건축 양식의 대표로 손꼽히는 커틀랜드 신전은 성도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을 때 그들에게 “큰 엔다우먼트와 축복”(교성 105:12)을 부여 주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3층 구조로 된 이 건물의 외벽은 벽토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우리 그릇이나 사기 그릇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갈아 벽토와 섞어 만들어 외부에서 볼 때 벽토에 빛이 나게 하였습니다.

1833년 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1836년 3월 27일 헌납 때까지 성도들은 온갖 힘을 다 기울여 노력하고, 근검한

생활을 한 끝에 지상 33.6미터의 탑과 18×24.4미터의 넓이를 가진 신전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1886년 4월 3일 이 장소에 구세주께서 방문하셨고 주님의 집으로 신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왔으며, 그는 교회에 이스라엘 집합의 열쇠를 맡기셨고, 일라이어스는 그의 권능을 부여해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여 주었습니다. (교성 110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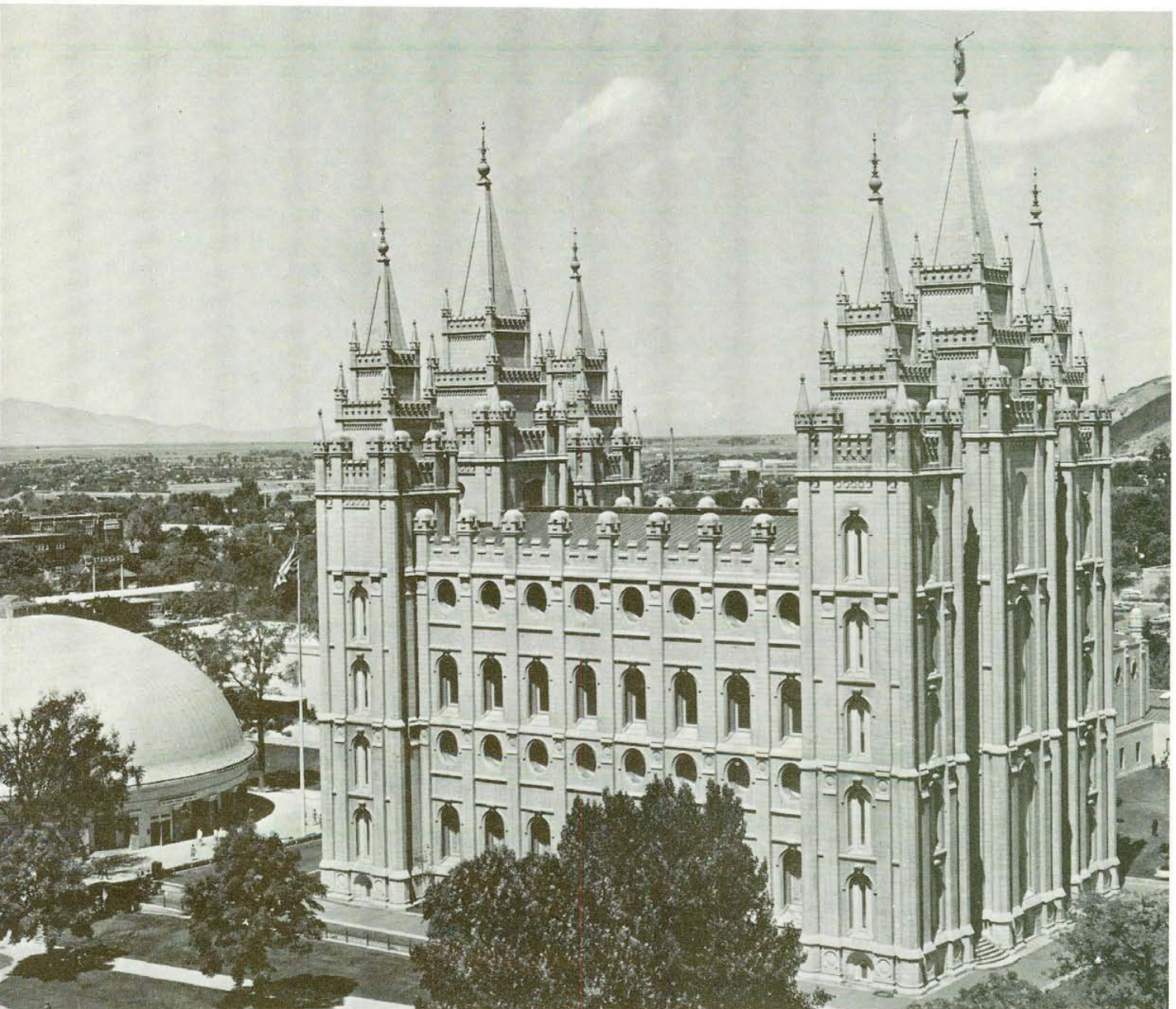
신전은 그후 2년 동안 성스러운 장소로 사용되었으나 박해로 성도들이 오하이오주를 떠나게 되었고, 신전은 폭도의 손에 파괴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그후에 재건되었으며, 현재는 복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집회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무 신전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또 다



맨타이 신전



솔트레이크 신전

시 내 이름으로 이곳에 집 한 채를 지으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은 무엇에든지 충실함을 증명하며 이로써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 존귀와 불사불멸과 영생의 관을 싸우게 할지어다”(교리와 성약 124 : 55)

주님께서는 1841년 성도들이 커틀랜드 신전을 포기하고, 미주우리주 잭슨군과 파웨스트의 헌납된 장소에 다른 두 개의 신전을 세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일리노이주 나부에 있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밝은 회색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세웠으나 이곳도 2개월 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큰 시련이 성도들에게 닥칠 것이며, 그들이 왕국을 건설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하나님의 권세에 힘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1845년 12월부터 엔다우먼트 의식이 집행되었으며, 그달 말까지 1000여명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신전은 1846년 2월 7일 문을 닫았으며, 성도들이 미주우리장을 건너 서부로 이주하자 이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1848년 11월에 이 신전은 사방 벽만 남기고 모두 불에 타버렸고, 1850년에는 남은 벽도 폭풍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솔트레이크 신전

1847년 7월 첫번째 개척자단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지 사흘만에 브리감 영은 그의 지팡이를 모래 땅에 꽂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전을 세우시다”라고 말했습니다.

1853년 2월에 기공식을 가졌고, 그 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0만불을 들여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전은 당시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자료를 사용하여 짓기로 하여, 동편으로 32킬로나 떨어진 채석장에서 캐낸 회색 화강암을 황소가 끄는 마차로 현장까지 운반하였습니다. 화강암 1장을 운반하는 데만 네 쌍의 황소가

사흘내지 나흘씩 걸렸습니다.

일에 소요되는 노력과 성도들의 가난 때문에 여러 차례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1873년에 이르러서야 철로를 이용하여 신전 광장까지 화강암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877년 신전 벽이 6.1미터 밖에 올라 가지 않았을 때 브리감 영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를 이은 존 테일러와 윌포드 우드럽 두 대관장이 이 일을 계속하여, 1898년 4월 5일에 신전은 완공을 보았고 일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1898년 4월 6일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신전을 헌납하였습니다. 31회에 걸친 헌납 모임이 있었으며 4월 24일을 끝으로 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신전의 완공으로 “19세기 미국 중서부 산간 지대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보인 신앙, 인내, 근면의 자랑스러운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고 한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세인트 조지 신전

유타주 동서부에는 131킬로에 달하는 아열대 기후의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남부 여러 주에서 개종한 사람은 목화를 재배하도록 그곳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곳이 유타주의 “딕시”* 라고도 불리워졌습니다.

1871년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곳 세인트 조지 마을에 신전을 세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전 부지의 북쪽에 있는 석회석 지반에 건물의 기초를 놓기로 되어 있었으나 물이 나서 일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명한 개척자들은 멕시코 전쟁의 유물인 낡은 대포실에 납을 녹여 부어서 신전 지반에 수백 톤의 암석을 깔아 이를 다지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건물은 그곳에서 나는 사암으로 짓고 흰 벽토로 칠해졌습니다. 1877년 1월 1일 건물의 아래층이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에 의해 헌납되어, 죽은 자를

* 역사주: 남북 전쟁 시 유행한 남부를 찬양한 노래로 미국 남부 일대의 통칭.

위한 칩레와 엔다우먼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전은 1877년 4월 6일 대관장단 보좌였던 다니엘 에이치 웰즈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47차 교회 연차 대회가 1877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이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로간 신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북쪽으로 132.8킬로 떨어진 아름다운 캐시 계곡에 로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로간시는 1859년에 물문의 정착지가 되었으며 그곳 주민은 곧 그곳에 신전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1863년 윌포드 우드럽은 성도들에게 “로간 지역 동편에...세워질 아름다운 신전탑에 들어갈 특권을 갖게 될 날이 곧 이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877년 5월 브리감 영 대관장이 언덕 위에 있는 신전 부지를 헌납하였습니다. 길은 회색의 규산 석회석으로 된 5층 건물인 이 신전에는 서쪽과 동쪽 끝에 각각 50.3미터와 51.9미터 높이의 탑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30미터 높이의 8각형 탑이 신전의 사면에 솟아 있어 성과 같은 특이한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이 신전을 짓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이 성의껏 그들의 가족이나 물건이나 자금을 회사하였습니다. 어린이들도 주일학교에서 신전 기금으로 그들이 저축한 푼돈을 헌금하였습니다.

로간 신전은 1884년 3월 17일 존 테일러 대관장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멘타이 신전

1850년 8월 브리감 영 대관장은 중부 유타주의 산피트 계곡 근처에 살던 성도를 방문하던 중 멘타이 신전을 세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그 신전 부지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예언자 모로나이가 신전 부지로 헌납한 땅입니다. ...”그러나 19세기의 마지막 신전인 여섯 번째의 이 신전은 1877년에야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신전은 돌산 위에 세워졌으며, 지반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만 일 년 반이 소요되었습니다. 건물을 완공하는 데 11년이 걸렸습니다. 노임의 대가로는 가축이나 농작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거칠고 못쓰게 된 땅을 개척한 이들은 용기가 부족하거나 높은 이상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로간 신전처럼 이 신전도 동쪽과 서쪽 끝에 탑이 솟아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8각형 탑에는 지하에서 지붕까지 5층을 연결하는 나선형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계단은 보조 기둥이라 난간이 없이 27.5미터의 높이를 나선형으로 올라 가지면과는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단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신전은 1888년 5월 21일,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로렌조 스노우 장로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하와이 신전

하와이 오아후 라이에 근처에 하와이 신전이 있습니다. 탑이 없는 세 신전(앨버타 신전과 아리조나 신전)중 제일 먼저 세워진 신전이 하와이 신전입니다. 하와이 제도에는 건축 자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양질의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화산석이 주요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내장을 위해서 목재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신전은 그리이스 십자형을 따라

동에서 서까지 31.1미터, 남에서 북까지 23.8미터로 뻗어 있고 중앙 부분이 15.3미터의 높이로 솟아 올라 있습니다. 건물의 외부에는 네 개의 조각된 소벽이 있는데, 이는 복음의 주요한 네 경륜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신전은 1919년 11월 27일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앨버타 신전

1887년 6월 41명으로 구성된 물몬 개척단이 캐나다의 리 크리크 강변에서 최초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중심부가 카드스톤 마을이 되었습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존 더블류 태일러 장로는 몇 년 후 이들을 찾아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전세계인을 위해 곡창 지대가 될 것이며,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신전이 세워질 것입니다.”앨버타 신전은 미국과 하와이 이외의 지역에서 세워진 최초의 말일성도 신전입니다.

1913년부터 1923년까지 계속된 신전 건축을 위해 인근 영령 콜롬비아 지방의 쿠테나이 호반 근처에서 아름다운 흰 돌을 채집하여 왔습니다. 팔각형인 이 신전은 앨버타 평원에 우뚝 솟아 있으며 카드스톤으로 다가 가면서, 사면 어디서나 그 뚜렷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전의 내부

는 참나무, 박달나무, 단풍나무, 튜립, 장미, 아프리카 마호가니와 수종의 호두나무 목재품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신전은 1923년 8월 26일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아리조나 신전

1878년 일단의 개척자들이 피닉스로부터 26킬로 떨어진 오늘날의 아리조나 메사에 정착촌을 세웠습니다. 수 년 동안 그들은 신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유타주로 장거리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1919년에 신전 건립 기금 모금 운동이 아리조나 스테이크에서 시작되어 곧 주아레스 스테이크와 멕시코 선교부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1923년에 신전이 착공되었으며 1972년 10월 23일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 의해 건물이 헌납되었습니다.

건축학상으로 볼 때 이 신전은 고대 건축 양식에 미국식 양식을 가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부의 소벽은 세상의 사면에서 집합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 줍니다.

이 신전은 미국 남서부의 성도와 멕시코 및 중미 지역의 성도에게 큰 축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아이다호폴스 신전

이 도시의 이름이 유래된 폭포를 멀리서 바라보며 스페이크 강변 경치



아이다호 폴스 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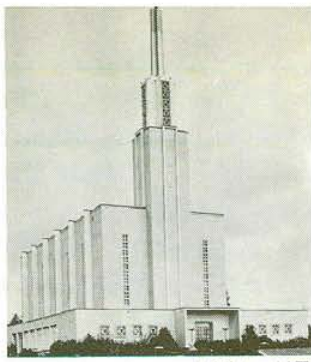
앨버타 신전



아리조나 신전



하와이 신전



스위스 신전



로스앤젤리스 신전



뉴질랜드 신전



런던 신전



오클랜드 신전



좋은 곳에 위치한 신전이 바로 아름다운 아이다호폴스 신전입니다.

1939년에 착공된 이 신전은 이상적인 용암 지반에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 건물은 햇빛을 받아 빛을 발하고 야간에도 조명으로 그 찬란한 빛을 잃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신전 서쪽 벽이 스네이크 강물에 비쳐 아름다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신전 중앙에는 49.2미터 높이의 탑이 관중에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이 신전에서는 아이다호, 와이오밍 몬타나 등 유타주에서 이주한 말일성도가 사는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 신전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신전은 1945년 9월 23일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스위스 신전

1906년 초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스위스의 베른에서 “하나님의 신전이 지상의 여러 나라에 세워질 날이 곧 이르게 됩니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반세기 후인 1952년 7월 22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유럽에서 최초의 신전이 스위스에 세워지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베른시의 근교인 툴리코벤 7에이커의 땅에 세워진 이 신전은 그전에 세워진 신전보다는 그 규모가 작습니다. 금빛나는 첨탑이 42.7미터의 높이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은 연회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탑기둥만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5년 9월 11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의해 헌납된 이 신전은 구라파 여러 나라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리스 신전

1847년 브리감 영과 윌라드 리차드는 캘리포니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아직까지 주님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웨스트우드 빌리지 산 타모니카 부울바드 근교의 13에이커에 달하는 야산 언덕에는 교회에서 이 경륜의 시대에 세운 가장 큰 신전이 서 있습니다. 총면적이 8158평방미터인 이 신전은 4층으로 되어 있고, 약 4.5에이커에 달하는 복도가 있습니다. 신권회가 열리는 3층 집회실은 넓이가 1951평방미터이며 높이가 10.4미터입니다.

이 신전의 꼭대기에 있는 모로나이 천사상은 지상으로부터 78.4미터의 높이에 세워졌습니다. 이 동상은 그 키가 4.6미터나 되며, 그의 손에 쥔 나팔은 2.4미터가 됩니다.

신전이 헌납되기 전 662,000명이 신전을 방문하여 내부부를 구경하였으며 교회의 이야기와 신전의 목적에 관해 들었습니다.

이 신전은 1956년 3월 11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신전

1881년 처음으로 뉴질랜드의 마오리 원주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개종 사업이 이들에게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자 마오리족이 아닌 뉴질랜드 사람들은 교회가 마오리족만을 위해서 조직되었다는 오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887년 뉴질랜드의 총회원인 2573명 중 2243명이 마오리족이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두 섬에 있는 회원의 수는 35,000에 이릅니다.

1955년 처음으로 남태평양과 오스트레일리아 제도의 교회 회원을 위한 신전 설립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해밀턴으로부터 8킬로 떨어진 투히카레메아에 있는 언덕 위의 땅이 신전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흰색으로 칠해진 아름다운 이 건물은 스위스와 런던 신전과 그 규모나 모양이 매우 흡사합니다. 미국의 여러 건축가들이 노동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이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시 뉴질랜드와 여러 섬에서 젊은 노동 선교사들을 불

렸습니다.

이 신전은 1958년 4월 20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런던 신전

1830년 교회가 조직된 지 7년만에 영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많은 개종자들이 새로운 교회가 있는 미국으로 물려 들었습니다.

후에 그들은 자기의 땅에서 왕국을 건설하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7개의 선교부와 14개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런던에서 40킬로 떨어진 서페이 뉴체플의 땅이 2차 대전 후 신전 전립 부지로 매입되었습니다. 1955년부터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된 이 현대식 건물은 1958년 9월 7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오클랜드 신전

“웅장하고 흰 주님의 신전이 앞의 산들을 빛내 줄 것이며 세상을 이끄는 영예로운 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가 1924년 샌프랜시스코 이스트 베이 언덕을 둘러 보고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예언의 눈으로 본 그 땅은 1942년에 매입되었으며, 태평양과 항구를 내려다 볼 수 있고, 웅장한 다섯 개의 탑을 가진 이 오클랜드 신전은

1962년 5월에 착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부터 탑까지 흰 대리석으로 지어졌습니다. 중앙에 있는 탑의 높이는 51.5미터이며, 네 개의 다른 작은 탑은 각각 29미터로 청색 유리 모자이크와 황금색 나뭇잎으로 무늬가 놓여져 있습니다. 밤에는 안으로부터 빛이 퍼져 실과 같은 빛줄기가 하늘 높이 치솟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의 남쪽과 북쪽 외부 정면에는 두 개의 조각된 창틀이 있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구세주요 다른 하나는 미대륙의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는 구세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신전은 1964년 11월 17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헌납한 신전입니다.

옥든 신전과 프로보 신전

1960년대의 통계를 조사한 결과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전 의식의 52퍼센트가 지금까지 세워진 13개의 신전 중 세 곳(솔트레이크, 로잔, 맨타이 신전)에서 행해졌음이 밝혀져, 물몬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유타주에 두 개의 신전을 더 세워 다른 세 곳에서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옥든 근처 태버나클 스퀘어가 교회 135,000명의 회원을 위해 쓰일 신전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록크 캐년 근처로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동북방에 자리 잡은 프로보 신전입니다.

이 두 신전의 설계에서는 인상적이고 극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내부 구조는 두 신전이 모두 같으나 외부의 모양이나 사용한 흰빛들이 비슷하나 여러 가지 다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보 신전의 받침들은 꽃모양을 하고 있으며 탑은 그 형태도 54.9미터의 높이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옥든 신전은 세로 홈이 나있는 특이한 금속 골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탑은 꼭대기까지 세로 홈이 나 있어 인상적인 모습을 줍니다. 지향성 유리로 된 아름다운 황금빛 창이 이 두 신전에서 크게 돋보입니다.

유럽의 신전보다는 규모가 크나 오클랜드와 로스앤젤리스 신전보다는 정교함이 덜한 이 두 신전은 지하 일층과 지상 삼층으로 사층 건물입니다. 옥든 신전은 1972년 1월 18일에, 프로보 신전은 1972년 2월 9일에 자기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와싱턴 신전

건축을 승인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신전 중의 보화”라고까지 하신 이 신전은 교회가 세운 열 여섯 번째 신전입니다. 칠층 건물에 여섯 개의 탑이 있는 이 신전은 교회의 상징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딕식 솔트레이크 신전의 멋을 현대적으로 조화시킬 건물입니다. 대리석을 사용해서 지은 최초의 신전이 와싱턴 신전입니다. 키가 5미터나 되는 무게 2톤에 황금색 모로나이 천사상이 87.8미터 상공에 높이 솟아 올라 있습니다.

매릴랜드주 몽고메리군에 소속되었으며 와싱턴 교회의 고지대에 57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차지한 이 신전은 와싱턴으로 통하는 고가도로의 어느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이 신전은 솔트레이크 신전보다 삼분의 일이 더 큼니다.

이 신전은 미시시피강 동편과 동부 캐나다 성도들을 위해 그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圖



프로보 신전



와싱턴 신전



왜 신전을 지을까요 ?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인생에 대한 질문에 영원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지상의 몇몇 장소에 국한되어 있다.

어떻게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생의 성스러운 신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나를 만드신 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죽음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게 할까? 아내와 자녀는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까?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서로를 알아 보게 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지혜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밝혀 주신 말씀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

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전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각 신전은 주님의 집이요 거룩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헌납되었으며, 세상적인 모든 것과는 멀리 떨어져 영원한 것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진리가 가르쳐지고 의식이 집행되며,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성스러운 유산과 영원한 존재로서 그가 지니는 잠재력을 알아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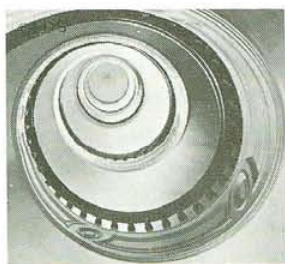
최근에 완공을 본 와싱턴 교회의 신전은 교회가 세운 열 여섯 번째 신전입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교 교회 집회 장소와 다른 이 건물은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다른 어느 종교 집회소와도 상이합니다. 그렇게 다른 까닭은 건물이 유달리 크다는지

건축학상 미적인 멋을 살렸다는 점에 서가 아니라 신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겠 습니다.

와싱턴 신전 이외에도 말일성도의 신전은 미국의 서부 여러 지역과 하와이,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초기에도 그러한 신전이 두 곳에 세워졌으나 일부 물지각하고 무자비하며 편견에 잡힌 폭도들의 박해를 피해 말일성도들이 이곳 저곳을 쫓겨다니던 시절에 두 신전을 포기하고 말았 습니다.

정교 예배 장소와는 구분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신전을 지정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 있던 관습으로 그들은 정교적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성스러운 장소로 지성소가 있는 광야의 장막을 지정하였으며, 이곳을 당시에는 신전으로 사용하여, 특별한 의식을 행했고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의식을 받기 위해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을 헌납하기 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신전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시켜 모든 시설을 살펴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일단 헌납되면 주님의 집



맨타이 신전의
회전계단



솔트레이크 신전의
나선형 계단



오들랜드 신전 해의 왕국실



이 되어,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면 합당한 위치에 있는 교회의 회원만이 신전에 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비밀스러운 일 때문이 아니라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건물에서는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자녀와 창조에 관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과 지상의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인 가족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결혼 성약과 가족 관계의 성스럽고 영원한 성격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남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거룩한 속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풀이될 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는 유익한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는 교리가 아름답고 인상적인 어조로 되풀이 설명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다 거룩한 가정의 구성원이고 모두가 그의 형제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 12 : 28, 30-31)

오늘날 신전에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도 인간이 그의 창조주와 그의 형제에 대해서 갖는 의무의 기본되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의식은 하나님 가족의 고상한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몸에 있는 영은 육신이 유한한 데 비해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전은 또한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이해시켜 줄 뿐만 아니라 참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다른 많은 자녀에게 보다 큰 우애를 나타내 보이게 해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지상 생활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집에서는 계시로 밝혀진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지상 생활은 영원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에 영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경전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 : 5)

우리는 지상의 부모를 통해 그의 자녀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부모

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의 협조자가 되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현세와 영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조직입니다.

신전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족에 관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전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 것 같이 우리는 죽은 후에도 계속 살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맛볼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만족스러운 관계나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답고 뜻깊은 가족의 유대는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와서 축복에 참여하는 결혼 당사자들은 현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깊은 유대를 지속하게 됩니다. 국법이 그들의 결합을 죽을 때까지 지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신권이 그들을 천국에서도 굳게 맺어 줍니다. 이렇게 결혼한 부부는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관계나 자녀들과 갖는 유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확신하게 됩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남편이나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 아내로서 그들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



메사 신전
해의 왕국실



만타이 신전 인봉실



옥든 신전 인봉실

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족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삶의 값진 것과 사랑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족 관계는 죽은 후에도 지속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전당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을 통해 얻는 축복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게만 국한된다면 참으로 이기적인 일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신전에 들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전세계에 광범한 복음 사업을 펴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게 이 프로그램을 계속 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성스러운 계시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들어 볼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전에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들은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 집행하는 집례, 결혼, 가족 관계를 결봉해 주는 인봉 의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에는 강제가 있을 수 없으나 똑같은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대리 사업은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보이는 큰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확인하고 찾아 보는 광범위한

계보 탐구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보 탐구를 돕기 위해서 교회는 계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훌륭한 탐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보 시설을 갖춘 기록 보관소는 일반에게 공개되며 선조의 기록을 찾으려는 비회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의 계보 연구가로부터 큰 찬사를 받아 왔으며, 이 기록 보관소는 각국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교회 회원이 그들의 선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선조들에게도 맛볼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나 자녀를 사랑하여 그들과 영생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나의 조부나 증조부나 혹은 다른 선조들도 이와 같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스러운 곳에서는 조용하고 경건한 가운데 수 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이 기록된 계시자 요한의 시현을 회상하게 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계 7:13-15)

이 성스러운 집에 오는 사람들은 의식에 참여할 때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들은 합당성을 인정하는 지역 신권 역원의 추천서를 받아 신전에 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전에 들어 오기 위해서 마음과 몸과 복장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제쳐 두고 하나님의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전에 올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그 자체에 큰 보상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날처럼 복

잡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잠시 세상을 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을 조용히 생각하여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성스러운 장소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값진 기회를 우리에게 안겨 줍니다. 거기서 참여자는 참으로 인생의 값진 것을 배우거나 회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전세에서 이 세상을 거쳐 우리가 서로 알고 사귀게 될 미래의 세계를 향한 우리의 영원한 여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영과 육과 정신을 유산으로 남겨 준 선조들과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신전은 다른 어느 건물과도 다른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신전은 성약과 약속을 맺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제단 아래 무릎을 꿇고 그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가지며, 그의 독생자이며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해 희생 되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위해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와 부모로서, 영원한 가족으로서 죽음으로도 해칠 수 없는 관계로 인봉되고 함께 맺어 집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건물은 말일성도들이 무참히 쫓겨 다니고 박해를 받던 암흑 시대에도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신전은 빈곤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번성한 시대에도 세워져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전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예언자와 거룩한 계시와 신전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믿는 회원들의 강한 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圖

“부모님은 절 신전에 데려 가셨어요”

브렌다 블록스햄

“우리 와드에서는 가족을 영원한 단위로 결속시키는 운동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아시죠. 신전에 관해서 가르치는 반에 참석해 보시겠어요.” 이 말을 들은 것이 우리 가족이 새로운 삶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복음 안으로 인도하려고 무단히도 애써 온 사랑에 찬 이웃인 우리 가정 복음 교사가 이 작업의 기초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감독님과 그의 보좌가 아버지

를 찾아 오셨습니다. “이 반에 참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들은 권고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께서 “참석해 보죠”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지만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분노와 쓰라린 마음과 두통까지도 느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복음 속에서 단합된 내 친구의 가정에서 우리와는 다른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은 불화 가운데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아버지는 그렇지 못

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만 다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에 싸였으며, 쌀쌀한 침묵과 치켜 뜬 눈표정이 분위기를 온통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이 질문을 하시고 아버지가 대답을 하신 때부터 복음이 서서히 우리 생활에 젖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줄어 들었고 간격도 좁아졌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은연중에 찾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다투지 않고 하루를 지내는 일이 드물었으나 우리는 그후 점차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걱정스런 얼굴로 “제가 오늘밤 초동협회 모임에서 노래를 불러요. 와서 들어 주세요”라는 말이나 “오늘밤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가 주시지 않겠어요”라고 간청한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가 침례를 받거나 축복을 받을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부정적인 대답만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완전한 가족으로서 함께 교회에 나가려고 했을 때의 기

몰몬일지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대로 사는 매일의 생활에서 얻은 갖가지 경험은 모든 말일성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는 이번 호에서 신전 사업을 통해 얻는 기쁨과 관련된 전세계 성도들의 뜻깊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전 사업은 가정과 가족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며, 기도에 응답을 가져다 주며, 복음 원리를 이해하게 해 주고, 마음을 편안과 행복으로 채워 줍니다. 성도의 벗사는 성도들의 값진 신앙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몰몬일지

쁨을 무어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 착잡한 심정도 느꼈습니다. 와드 회원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아들여질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원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으며, 특히 우리는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누군가가 거친 말을 할 때라도 조용하고 성의있게 사랑이 깃든 말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무엇이든 뒤로 미루는 대신 열성껏 처리해 나갔습니다. 잔일은 즉석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사랑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에 볼 수 있던 냉대나 자만심이나 다름과 대치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이유가 되겠지요. 참으로 오랜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이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자 우리는 서로를 알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게 되자 우리의 간증도 커 갔으며,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 교회 집회 출석 등에 대해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속 깊이 느낀 간증은 회개의 원리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과 우리가 합당하게 살았다는 확신을 얻은 후 우리는 권세의 영원을 위한 가족 관계로 결봉해 주는 인봉 의식을 받기 위해 주님의 신전에 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신전에 가기 전날 밤은 행복과 흥분과 걱정으로 휩싸인 밤이었습니다. 과연 신전 의식을 받게 될까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머리 손질과 신전복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4살에서 14개월에 이르는 우리 여섯 딸을 위해서 똑같은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서는 4시에 일어나셔서 소의 젖을 짜고, 먹이를 주셨고, 우리가 5시 30분에 떠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을 모두 끝마치셨습니다.

신전 문 앞에 들어 섰을 때는 감격하였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잠시 주저하다가 우리는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실에서 몇 시간을 보낸 다음, 안내자를 따라 인봉실로 들어 갔습니다. 신전복을 입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제단 주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안내자가 아기를 안아 주어 우리 가족으로 인봉받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현세와 영원을 위해 한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 주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부모님께서 나를 영원히 그의 자녀로 인봉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주는 것이 사랑 이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의 추억이 매우 몽롱한 채 아롱거리나 우리가 신전에서 걸어 나올 때 아버지의 얼굴에서 본 기쁨은 나와 나의 다섯 여동생과 한 남동생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습니다.

브렌다 블록스햄 자매는 솔트레이크 익미그레이션 스테이크 제21와드 주일학교 교사이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크리스찬 레본

나는 신전에 갈 때마다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힘을 받은 합니다. 그외에도 신전은 경건, 성스러움, 순종, 질서, 신권 지도자에 대한 존경, 형제애를 마음껏 느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느 날 나는 신전에서 진정한 여성의 직분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여성이 어느 의미에서도 남성에 못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다른 부름을 받았으므로, 남성을 부러워할 아무런 이유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온산의 구원자” (욘 21절 참조)가 된다는 것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안겨 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크리스찬 레본 형제는 불란서 파리에 있는 번역 출판부의 번역 부장이다.

영광스러운 순간

시푸아오 마투아우토

나는 결혼할 때까지도 이 성스러운 곳에 가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 가겠다고 내가 결심을 내린 것은 나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엔다우먼트도 못 받으시고 아버지에게 인봉되지 않으신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희 어머니를 위한 신전 사업을 즉시 행하라”는 조용하고 작은 음성이 계속 들려 왔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 말을 무시하려고 하였으나 점점 더 크게 들려 왔습니다.

마침내 나는 공부를 멈추고 이 작은 음성이 전하는 메시지를 꼼꼼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신전에 들어 가기에 합당하다고 느꼈으나 그 후에 지켜야 할 성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가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고, 슬픔 때문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나의 마음속 깊이 파고 드는 성령의 감미로운 속삭임에 자신을 잃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신앙과 용기가 되살아 올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곧 감동님을 찾아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독신 여성이 선교사로 나가거나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전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나는 특별히 허락을 받기 위해서 수주일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는 이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나는 또한 어머니의 신전 사업을 위해 필요한 가족 기록서를 작성했습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님으로부터 마지막 지시를 받은 후 나는 신전에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신전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예로운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맺은 성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성약을 맺을 때마다 주님 앞의 우편에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영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식을 모두 마친 후에도 신전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주일 후에 나는 어머니를 위하여 다시 신전을 방문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는 동안 어머니가 함께 하심을 느꼈으며, 부모님을 위해 결혼 인봉 의식을 베풀 때도 그

분들이 제단에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 방안이 성령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에게 인봉되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참으로 그분들과 함께 결합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들이 곁에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신전은 참으로 기도의 집이며, 성령에 관한 것을 배우는 높은 가르침의 집입니다. 나는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때마다 신전에 가 좋은 답을 찾곤 합니다. 신전에 가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에 있는 바를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전이 내게 안겨다 준 축복에 대해 감사합니다. 지상에서는 그곳보다 더 가 보고 싶은 때가 없습니다.

시무아오 마투아우토 자매는 교회 번역 출판부에서 번역사로 일하고 있으며, 태버나클 합창단 단원이기도 하다.

“전에도 사랑했었는데”

보우 지 웨너랜드

나는 1949년에 침례를 받았지만 나의 아내는 사 년이 지난 후에야 침례를 받았습니다. 1955년 스위스 신전이 헌납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일곱 식구였으며, 여행 비용이 우리의 가정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문을 열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나의 사장님께서 내가 해놓은 일을 몹시 기뻐하시며, 상당한 액수로 봉급을 올려 주었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는 처음으로 신전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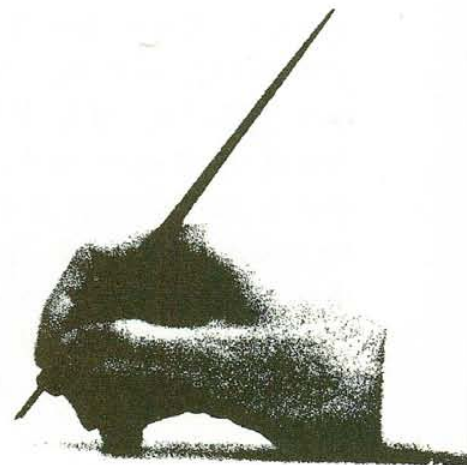
나는 그때 처음 신전을 방문하고 나서 얻은 기쁨, 행복감, 복음대로

생활하겠다고 다짐한 결의를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나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현세와 영원을 위해 하나로 인봉될 때는 기쁨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나는 제단 앞에 선 아내의 눈에서 행복에 젖은 눈물이 흘러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전에도 사랑했었지만 그 순간 이후 아내에 대해 갖는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딸인 그녀는 내 어린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마치 그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후 점점 우리의 기도는 뜻깊어졌고 우리는 전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즐겨 주님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전 사업과 신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신을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신전을 찾곤 하였습니다. 신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강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우 지 웨너랜드 형제는 스웨덴 선교부 선교부장단 보좌이다.





마리아 힐링

꽃

독일과 불란서의 경계에 있는 로렌 지방은 오랫동안 분쟁 지역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편리해 거리가 단축된 때에는 로렌 지방도 지도상의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무덤과 비석으로 뒤덮인 역사의 땅이기도 합니다.

로렌 지방의 수도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메츠시로, 한때는 구라파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지이기도 했습니다. 돌까지도 역사를 말해 준다는 도시입니다. 서쪽으로부터 흘러 오는 모셀 강은 갑자기 이시에 다가 오면서 갈라져 전시를 안고 흘러 내립니다. 수많은 다리와 만이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해 줍니다.

강물이 다시 합쳐지는 동쪽에 묘지 섬으로 알려진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쟁이나 적에게 함락될 때에 대비하여 식량과 탄약을 저장하는 큰 창고와 군수품 공장이 있습니다. 섬의 끝쪽에는 섬의 이름이 유래된 세 묘소가 있습니다. 시립 묘지와 유대인 묘지와 군인 묘지가 그것입니다. 섬의 맨끝에는 산 자를 위한 빵과 파괴의 도구인 무기과 유대인, 기독교인, 군인의 묘소 등이 이상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땅을 바라보며 거대한 나무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일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1847년 이래 독일 땅이던 로렌 지방이 다시 갑작스럽게 불란서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로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변함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가에 꽃을 장식하는 성도의 날인 11월 1일이 다가 옵니다. 이 날이 되면 우리는 가족과 친지의 묘소를 찾아 꽃으로 단장을 합니다. 군인 묘소엘 가면 이미 오래 전에 묻힌 무덤 이외에 지난 전쟁에서 세상을 떠난 병사의 새로운 무덤이 지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무덤은 작은 나무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으며, 단정하게 보이도록 소나무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나 화환은 없습니다. 독일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곳 병사의 무덤에 그들의 손길을 미칠 수 없었으며,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이 무덤을 장식하거나 꽃을 보낼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날이 밝자 방문객들은 즐지어 묘소를 찾았고, 군인 묘소를 찾은 사람들은 새로운 묘소 옆에 놓인 싱싱한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원에서 꺾은 국화를 이른 새벽에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작은 일이지요? 그러나 불꽃이 튀면서 빛을 발하듯 보잘 것 없다고 여겨지는 작은 행위가 세상 어느곳엔가 메아리 되어 울립니다. 나는 이십 년이 지난 후 어머니가 2차 대전 중에 사랑하는 두 손자를 잃었을 때도 러시아의 어느 곳에서 또 다른 어머니가 같은 심정으로 이들의 무덤을 보살펴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



신앙



아버지의 권고를 기억함

신앙 윈터 쿼터즈의 작은 통나무 오두막 집이 완성되기도 전에 올슨 스펜서와 그의 6명의 아이들은 그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들은 교회의 신문 출판을 위해 브리감 영 대관장의 부름을 받은 아버지가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곳에 정주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만 열 네 살이 된 엘렌과 열 두 살의 오리리아에게 아버지께서는 4명의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는 “어린 어머니”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기 루시는 겨우 세 살이었다. 어머니는 그들이 나부를 떠난 직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미주우리 강을 건너와서 그가 떠나기 전에 오두막 집을 완성하려고 서두르셨다.

그는 8마리의 암소를 사서어 먹을 우유를 충분히 준비해 두셨고, 나머지는 팔 수도 있게 하셨다. 말도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말은 음식을 사기 위해 팔 것이었다.

늦은 가을 아버지가 그들과 작별을 하셨을 무렵 딸 두 명은 겨우 병에서 회복되는 중이었다. 이웃 오두막의 친구들은 어린애들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도와 주기로 약속했다.

겨울은 길고 춥고 외로웠다.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그 중에는 스펜서 집안 아이들의 친구도 몇 명 있었다.

오리리아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는 겨울의 전반기를 아주 잘 견뎌 냈다. 그러나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우리의 말과 소는 한 마리만 남고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우유도 버터도 없다. 우리가 저장해 두었던 식품은 거의 다 떨어져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봄과 여름에는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게 될 것이다. 얼마 동안 우리는 물로

씻어 번철에 익혀 먹는 콘·밀만을 먹었다. 많은 밤을 저녁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아주 배가 고파야만 그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1847년 늦은 가을 어느 날 브리감 영 대관장은 스펜서의 단칸 방짜리 통나무 집을 찾아 가셨다. 집은 청결하고 아이들은 깨끗하였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성도들이 봄이 되면 서부 산악 지대로 이동하려고 준비하는 1년 동안 집에 안 계셨다.

아이들은 영 대관장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자주 보내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머리를 빗으며 어떤 면 어떻게 해야 하고 서로 어떻게 돌봐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편지로 얘기해 주는 것을 말했다. 그들은 마지막 받은 편지를 대관장에게 보여 드렸다. 편지를 읽은 후 대관장은 “너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얘기하시며 이렇게 물으셨다. “만일 아버지가 영국에 1년 더 머무시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거기에 계시기를 우리는 바란다.”

아이들은 서로 쳐다 보다가 제일 나이 많은 엘렌이 말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의 길을 택하고 싶으니까요.”

다른 아이들도 찬성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버려 두신다 해도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하며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라고 편지했던 것을 생각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권고를 믿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었다. 그래서 1848년 봄 스펜서의 아이들은 결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서부로 이동할 준비를 시작했다. **■**

우리의 선교사 친구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

행복한 이웃

행복한 이웃

어느 날 일곱 살짜리 램시가 친구네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선교사 두 명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 와서 친구의 가족과 이야기했다. 램시는 두 장로가 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흥분해서 그들에게 자기네 집으로 와서 자기네 부모에게도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램시의 가족도 선교사들의 메시지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몇 번 더 선교사들을 초청했다.

곧 램시의 부모와 두 형은 칩레를 받았다. 이듬해 램시는 가장 행복한 생일을 맞았다. 그는 칩레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다. (오하이오-웨

스트, 버지니아 선교부)

지혜의 말씀

아뿌이의 얼굴은 멍이 들고 부어 올랐다. 이는 세 개나 부러졌고 빵에는 봉대를 감았다. 금식 주일이 되기 4일 전 그는 자전거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간증회에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고 간증했다. 그의 간증으로 그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은 감동했다.

교회에 다니기 전부터 아뿌이는 홍콩에 있는 선교사를 열심히 도와 주었다. 처음엔 그의 형과 누나들이 칩레를 받았고 그 후 아뿌이도 교회 회원이 되었다.

요즈음 아뿌이와 그의 형과 누나들은 부모님도 복음에 대해 더욱 많이 배우셔서 교회 회원이 되게 돕기로 했다. 홍콩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들의 선교 활동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름다운 일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열 두 살 먹은 줄리 앤 크리스첸슨은 어느 날 길 건너편에 이사온 친구 로리 본템포를 찾아 갔다. 본템포네 가족은 식당의 식탁에 둘러 앉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줄리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가족들이 교리에 관해 의아스러운 것을 물어볼 때마다 줄리는 신앙개조를 암송하고 그것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 가족들은 어린 소녀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에 놀랐다.

나중에 줄리는 물문경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고 선교사들이 방문하여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려 주고 싶어한다는 것을 말했다. 1974년 2월 9일 폴, 캐롤, 로리, 데이비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칩레를 받았다.

“줄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아름다운 것을 뿌려주는 것 같이 보였지요.” 본템포씨는 말했다. “그 애는 정말로 어떤 특별한 영감을 가진 것 같아요.”

문밖의 낯선 사람

1973년 10월 26일 저녁 일본의 가나자와에 있는 선교사 2명은 이집 저 집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통 때와는 다른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작은 정원을 들어가 아부란파니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유카와 다다가쓰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아이 둘이 미닫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키 큰 청년 둘이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다다가쓰는 식당으로 뛰어 들어 갔다. “문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외쳤다.

그의 누나인 유카는 “미국 사람들인가 봐요”라고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 선교사들은 자기들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라고 소개하고는 가족들에게 교회에 대해 설명해도 괜찮은지 물어 보았다. 그녀는 남편과 상의한 후 그들을 집안으로 들어 오게 했다.

유카와 다다가쓰는 그들의 가족이 칩레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열심히 도왔다.

칩레받을 날이 드디어 왔다. 다다가쓰는 검은 눈을 반짝이며 엄마와 아버지와 누나를 보고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제 그는 자신도 칩레받을 나이가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초등학교 선교사

나는 홍콩에 살고 있는 소녀로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인 리 슈링입니다. 나는 비록 교회 회원이 된 지 5개월 밖에 안 됐지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으며 이 기쁨을 학교 친구와 함께 나누고 싶어합니다.

나는 친구 1명을 교회에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나와 함께 초등학교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기를 “나는 불교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너희 교회엔 같이 갈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난 그녀가 교회 회원이 아닐지라도 나와 함께 가면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그는 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스런 주님의 집에서 평안과 행복감을 느꼈다면 초등학교에 참석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복음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선교

사와 복음 토론 시간도 가질 수 있는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친구와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알아 봅시다

내 이름은 필립 크룩이고 나이는 아홉 살이에요. 그리고 집안의 4명의 아이들 중 맏이예요. 일곱 살짜리 리키, 여동생인 다섯 살짜리 재넌 그리고 세 살짜리 크리스틴이 있지요.

3년 전에 우리는 와싱턴으로 이사를 왔고, 그래서 아빠는 대학에 다니서 학위를 딸 수 있었어요. 내 친구 이름은 캐시인데 캐시는 내가 자기랑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 후 난 친구와 함께 몇 번 초등학교에 참석했는데 협회 회장이 나에게 물문경을 주었어요. 나는 초등학교에서 기도를 배웠고, 부모님은 내가 식사 때 기도를 하게 두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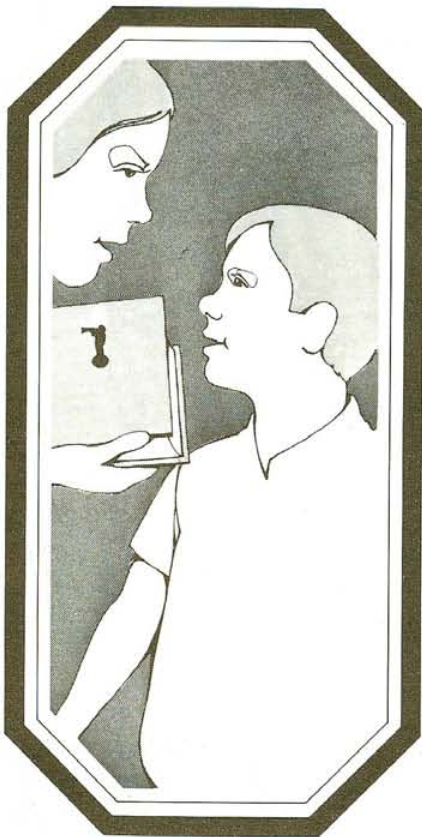
내가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성찬식 때였어요. 가족이 모두 나를 보러 오셨어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는 엄마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대해 알아 봅시다! 선교사들은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필립과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그들을 집에 오게 해야 하겠어요.”

선교사들은 매주 방문했고, 그들이 집을 떠날 때마다 엄마와 아버지는 현관 계단에 앉아 어두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이야기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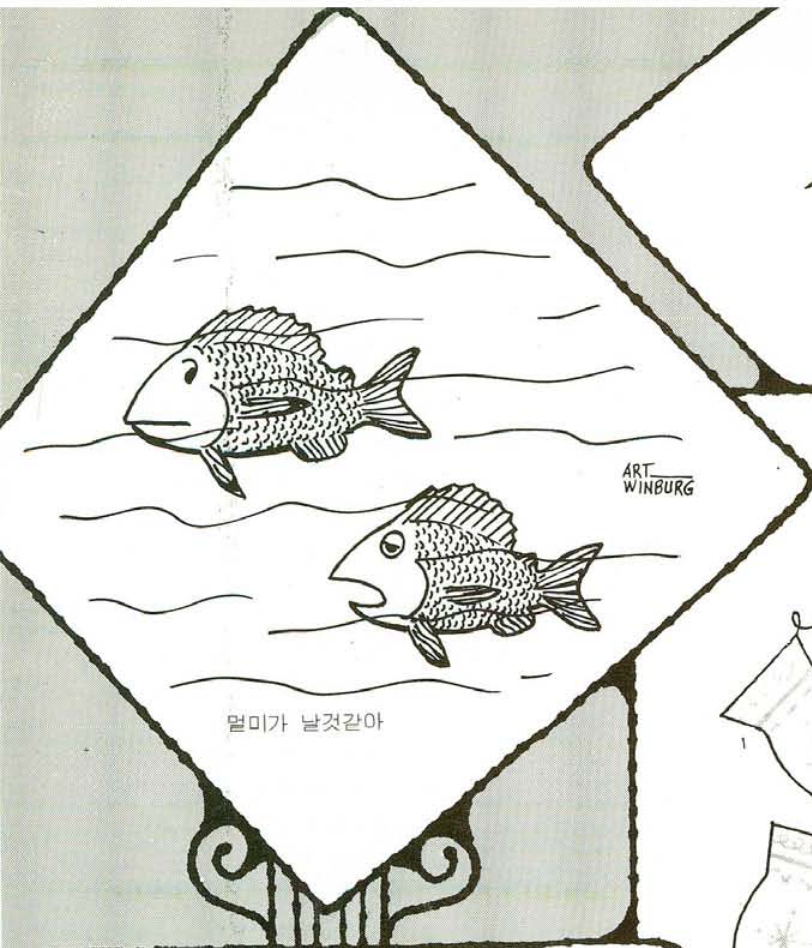
두 달후 어머니는 교회 회원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는 담배를 끊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얼마 후 아버지는 담배를 끊으시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는 칩레를 받으셨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한 마음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가족이 자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지요.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에 무엇을 했었는지 모르겠어.”

이제 우리는 문제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아시어 우리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도와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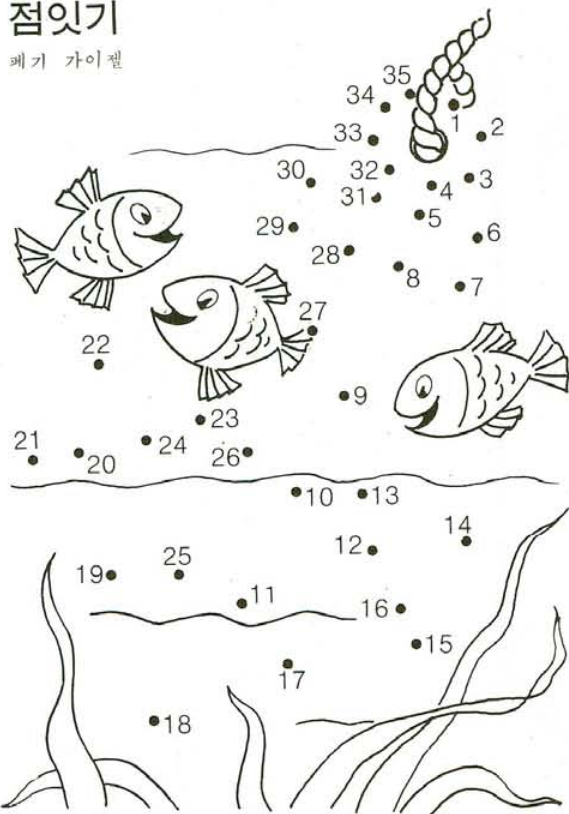
심심풀이



멀미가 날것같아

점잇기

페기 가이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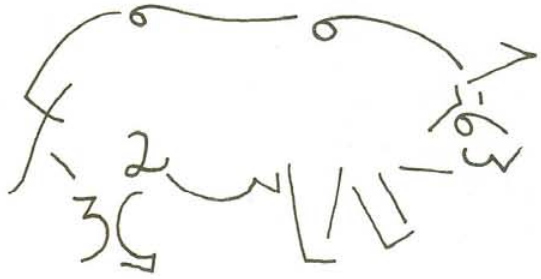
수지의 빙어리 장갑을 찾아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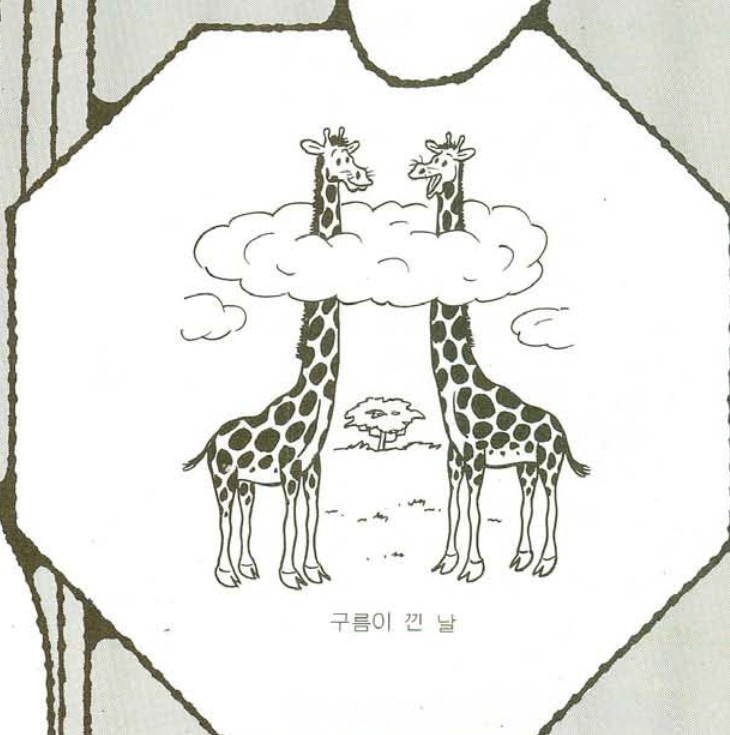
돼지 수수께끼

바이올렛 엠 로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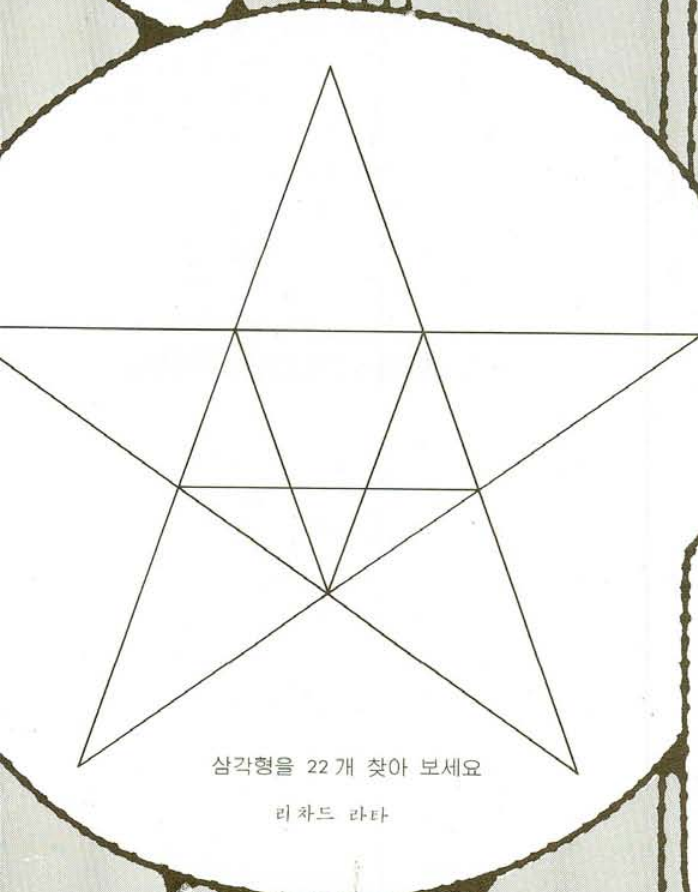
이 돼지는 18 개의 숫자로 그려져 있는데 (이 숫자는 1 에서 7 까지 숫자로 되어 있다) 이 숫자를 모두 합하면 71 이 된다. 다 더해서 71 이 되는 18 개의 숫자를 여러분은 알아 낼 수 있나요?



물리가 집안 청소를 하나봐



구름이 껴 날



삼각형을 22 개 찾아 보세요

리차드 라타



길을 잃은 사람이
우리들은 아닌가봐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각색함)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옛 덴마크 어느 시골의 아주 먼 산골에 농부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농장의 작은 집은 이끼가 뒤덮여 있고 지붕의 처마엔 황새가 둥우리를 지어 살고 있었다. 벽은 휘어져 있고 창문들은 모두 조그만하였는데 그 중 한 창문만이 열리는 것이었다. 빵을 굽는 오븐은 벽의 한 구석에 특 튀어나와 있었다. 밖에는 딱총나무와 버드나무의 율타리가 조그만 연못을 둘러 싸고 있고 그 연못에는 오리와 오리 새끼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뜰에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누구에게나 짚어 대는 늪은 개가 있었다.

두 부부는 별로 가진 것 없이 지냈지만 목장이 없으므로 길에서 풀을 뜯어 먹이는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다. 가끔 농부는 이 말을 타고 읍에도 가고 또 어떤 때

는 그의 이웃이 말을 빌려 가기도 했다. 농부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은 친절행위는 다른 사람의 친절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농부는 만일 이 말을 유익한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 비록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는 몰랐지만, 좋을거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부인이 말했다. “오늘 읍에는 장이 서요. 말타고 읍에 가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왜 안가시죠?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이 하는 일이면 옳은 것일 거예요.”

부인은 남편이 더욱 멋져 보이게 나비 베타이를 매 주었다. 그리고 부인은 모자를 손바닥으로 털어 주고 잘 다녀 오라고 인사를 하며 입을 맞추었다. 남편은 팔거나 바꿀지도 모를 말을 타고 떠났다.

햇볕이 비치고 날씨는 더웠고 길가에 응달이라고는 없었다. 먼지길은 장으로 가는 사람으로 붐볐다. 어떤 사람은 수레를 타고 어떤 이는 말을 타고 갔지만 대부분은 걸어 가고 있었다. 농부는 가는 도중 어떤 사람이 보통 다른 암소만큼 아름다운 암소를 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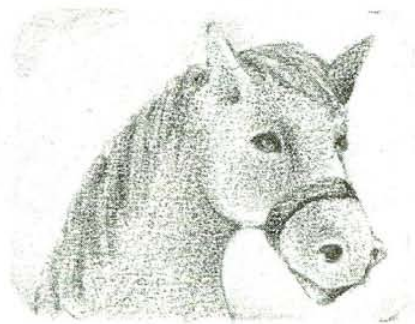
가는 것을 보았다.

“저 암소는 많은 우유를 낼 거야”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불렀다. “소를 물고 가시는 분 이야기 좀 합시다!” 그 사람이 돌아섰을 때 농부는 말을 이었다. “말이 소보다 비싸다는 건 잘 알고 있오. 그러나 나에겐 소가 말보다 필요한 것 같소. 바꾸시겠오?”

“그럼요, 바꾸지요” 대답했다.

이제 농부는 하려던 일을 마쳤기 때문에 새 소를 물고 집으로 갔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장에 가려고 했으므로 여기까지 와서 장에 들르지 않고 간다는 것은 섭섭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는 소를 물고 걸어 가다가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났다. 매우 좋은 염소였다. 농부는 그 좋은 염소를 갖고 싶어했다. 거



울엔 추워지면 집안에 들여 놓을 수 있지. 더구나 소를 먹일 풀밭은 없지만 염소를 먹일 풀밭은 있지 염소를 쳐다 볼수록 그 염소가 더욱 맘에 들었다.

“그 염소를 이 소와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마침내 물어보자 흥정은 이뤄졌다.

잠시후 큰 바위 위에 앉아 쉬고 있는 사람을 보고 농부는 염소를 끌고 더 이상 가지 못했다. 그는 큰 거위를 안고 쉬고 있었다. “굉장히 좋은 살찐 거위네!” 농부는 모자를 벗으면서 말했다. “우리 집 연못에 떠 있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아내는 감자 껍질을 거위에게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는 혼자 아내가 자주 거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생각했다. “이제야 거위를 가질 수 있구나! 이 염소와 거위를 바꾸고 싶는데 거래가 되면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싶소” 그는 거위 주인에게 말했다.

“거위에 염소라니!” 거위 주인이 말했다. “이건 큰 이익인데요. 그러나 난 이 흥정을 너무 박하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농부는 거위를 팔에 끼고 걸어갔다. 그가 장에 가까이 갈수록 사람과 가축이 많이 있었다.

읍의 문지기는 닭을 감자밭에 묶어 놓았다. 그 닭은 번잡한 가운데에서도 놀라 도망갈 수 없었다. 닭 꼬리는 부의 꼬리처럼 아름다웠다. 닭은 “꼬꼬! 꼬꼬” 울며 농부를 향해 눈을 깜박였다.

“저 닭은 아름다운데 내가 가지면 좋겠다”라고 농부가 말했다. 그는 닭은 언제나 먹이를 찾아 다니며 땅위의 곡식알을 항상 발견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알을 낳을 것이다. 저 닭을 갖기 위해 흥정해 보아야겠다.

곧 흥정이 끝났다. 농부가 문지기의 흰 닭과 거위를 바꾼 후 그



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품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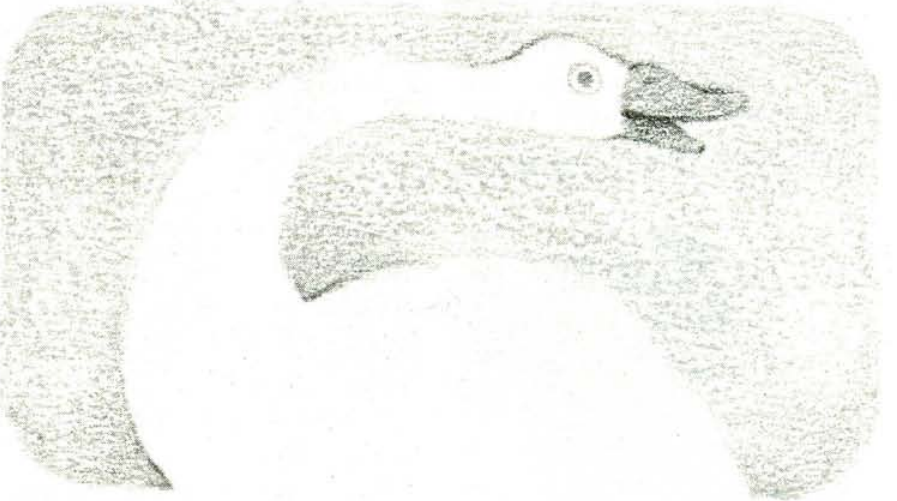
여관에 들어 갈 때 농부는 어깨에 푸대를 멘 일꾼 한 명과 부딪쳤다. “이 푸대 속에 무엇이 있소?” 농부는 물어 보았다.

“썩은 사과요” 일꾼은 대답했다. “이걸 돼지 우리에게 갖다 주려고요”

농부는 생각했다. 한 푸대 전부를 버리다니 얼마나 큰 낭비인가! 우리 집 아내가 이것 보았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지난 해 자

기네 사과나무에는 사과 한 개만이 열렸던 것이 생각났다. 마누라는 찬장 위에 그걸 놓아 두었는데 그걸 말라서 호도만 해질 때까지 놓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그에게 말했다. “이걸 보기만 해도 부자인 것 같은 기분이 예요” 한 푸대 가득한 사과를 갖게 된다면 아내는 정말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일꾼에게 사과를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로 무엇을 주시겠어요?”



일꾼은 물었다.

“이 닭이요” 농부는 대답했다. 그는 닭 한 마리 대신 썩은 사과 한 푸대를 팔에 안고 나서야 말할 수가 있었다.

여관에는 푸줏간 사람들, 농부들, 상인, 말장사, 그리고 부자 영국인 2명이 있었다. 농부는 무심코 앉아서 사과 푸대를 난로 위에 놓자 곧 부글부글 끓고 지글거렸다.

“그것이 무엇이요?” 한 부자 영국인이 난로 위의 푸대를 가리키며 물었다.

농부는 그에게 그의 말을 소로, 소를 염소랑, 염소를 거위랑, 거위를 닭으로 끝으로 닭을 썩은 사과 한 푸대랑 바꾼 이야기를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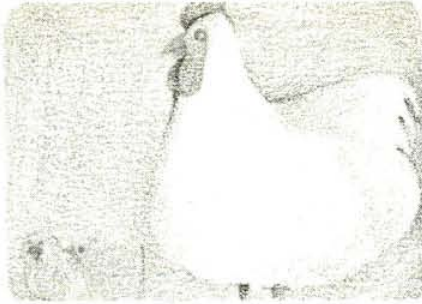
“집에 도착하면 부인이 화 내시겠습니다” 영국인이 비웃었다.

“아니오” “그녀는 나에게 입을 맞추어 주고는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아요’라고 말할 겁니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부인이 안 그러신다면 금 1통과 은 한 푸대를 주겠소. 내기 할까요?” 두 영국인이 동시에 말했다.

“금 한 통이면 충분하오. 만일 내가 지면 썩은 사과 한 통을 걸겠소. 그리고 덤으로 우리 집 아내와 나를 걸겠소” 농부는 말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여관 주인의 말과 마차를 빌려 타고 농부와 함께 그 농부의 집으로 갔다. 그들은 젖어대는 개와 농부의 아내가



그들을 맞으러 나온 문 앞에 도착했다.

“잘 있었오, 여보” 농부가 말했다. “무사히 돌아 오셨군요” 아내가 말했다.

“음, 말을 소랑 바꿨지” 농부가 말했다.

“장사는 남자가 할 일예요” 그녀는 말하고 그를 얼싸안았다. “우리는 이제 우유랑 버터랑 치즈를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소를 염소랑 바꿨소” “당신은 참 현명하세요” “우리는 염소를 먹일 풀도 있고 염소의 젖은 저녁 식사에 알맞겠어요. 난 염소털로 양말과 잠옷을 짤 수 있겠네요. 당신은 참 현명하고 사려깊은 사람예요!” 아내는 행복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염소를 살찐 거위와 바꿨소” 농부가 이야기해 주었다.

“참 훌륭하세요. 그럼 우리는 11월 성 마틴 이브에 살찐 거위를 먹을 수 있겠네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언제나 날 즐겁게 해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난 거위를 닭과 바꿨소” 농부는 그가 일을 아주 잘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말했다.

“굉장히 잘 하셨어요” 부인은 말했다. “닭은 알을 낳고 알에서 병아리가 깰 거예요. 곧 우리는 닭장을 갖게 되고 그건 제가 항상 원하던 것이예요”


“그러나 난 닭을 썩은 사과 한 푸대와 바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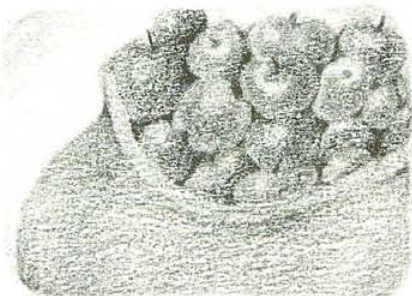
“여보, 정말 고마와요. 당신에

게 입을 맞추어 드리고 싶어요!”

그의 부인은 말했다. “당신이 장에 가신 동안 난 맛있는 저녁을 장만하려 했어요. 파를 넣고 오므렛을 만들려 했는데 파가 없었어요. 옆집엔 파가 좀 있었지만 그녀는 나에게 빌려 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장하기를 나는 썩은 사과라 할지라도 그만큼도 값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 정원에선 아무 것도 자라지 않는다고요. 이제 난 그녀와 썩은 사과를 거래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제일 맛있는 흥정을 했군요”

영국인은 크게 웃어댔다. “태평한 사람들이군.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만족해 하는군. 저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이만한 돈을 주어도 아깝지 않지”라고 그들은 말하고 금화 한 통을 농부에게 주었다.

그렇죠. 이젠 남편이 현명하다고 인정한 부인에 대한 대가이죠. 이제 여러분은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아요!”라는 말의 뜻을 알았겠죠. 





사도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매튜 카우리

영역

약 력

카우리 장로는 1897년 8월 2일 아이다호주 프레스톤에서 매티아스 에프 카우리와 아비 하이드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7세 때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는 조지 와싱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938년 카우리 장로는 뉴질랜드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1922년 7월 13일 와싱턴에서 공

부를 계속하던 중 고향에 돌아와 엘바 에리노 테일러 자매와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은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집행되었다.

1945년 10월 5일 카우리 형제는 반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이 대회에서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는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되었으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도해 오고

사랑해 온 이 젊은이를 최초로 사도로 불렀던 것이다.

1945년 10월 11일 카우리 장로는 이 경륜의 시대의 65번째 사도로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성임되었다. 약 1년 후에는 총관리 역원 중에서 중책을 맡을 자리가 생겼는데, 이때에도 카우리 장로가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아 태평양 제도 선교부의 선교 부장직을 맡게 되

* 레온 알 하트손편, 사도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솔트레이크시티: 메저넷 출판사



마오리 성도와 나란히 선 매튜 카울리 장로

었다. 새로운 직분에 부름을 받은 그는 태평양 지역의 여러 선교부에서 교회의 일을 관리하는 책임도 지게 되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는 본부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었지만 그는 그후 3년 동안 계속 여러 섬을 순방하였다. 폴리네시아 백성들은 그가 선교사와 선교부장으로 마오리 백성과 함께 살았을 때 그들이 받았던 축복을 이제 다시 그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는 언어에 천부의 재질을 타고 나 원주민의 말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으며, 여행하는 곳 어디서나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었다. 그는 태평양 제도 이외에도 동양과 오스트레일리아 선교부를 방문하였다. 그는 필리핀과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땅으로 헌납하였다. 이와 같은 특별한 부름을 받고 삼년간을 봉사한 후 그는 해임되었으며, 그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른 총관리 역원과 같이 교회의 여러 스테이크와 선교부를 방문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다.

1953년 2월 13일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 당시 가장 사랑받던 인

물의 하나가 되었다. 그만큼 주위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었다.

“17세의 젊은 나를 통해”

나는 어린 소년으로 동반자도 없이, 원주민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근 삼 개월간을 매일 아침 여섯 시에 숲 속으로 들어가 열한 시간씩을 공부하고 금식과 기도를 드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혼자서 11, 12주가 되었을 때 나는 원주민 앞에 담대히 나서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전에는 읽어 보거나 들어 보지도 못한 말을 쓰고 있었으며,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은 어린 아이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17세의 젊은 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 가족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
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없이 많이 기도를 드렸고, 매우 열렬히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도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가정의 온전함은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회 기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지성소는 이 태버나클이나 신전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의 힘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나는 멀리 학교에 가 있거나 외국 어느 섬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나의 부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근 8개월간을 앓아 누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중기, 일사병, 춘궁으로 고생을 했고, 말발굽에 배가 차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혼자 속으로 “그래도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나 형제 자매는 나를 위해 기도를 드려 줄 테니 자신을 갖자”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저물어 밤이 오면 나는 12,000킬로나 떨어져 있는 나의 가족이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그 기도에서 나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한 후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면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자 이리 오너라, 난 아직도 이 가정의 축복사요, 난 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거든” 하시며 기도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셨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 나

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들 원주민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 합니다.”

그는(매튜 카우리) 그에게 온 사도직의 부름에 다소간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원주민 친구가 그가 그런 직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뉴질랜드에서 있었습니다. 선교부 산하의 성도들이 루퍼스 케이 하디 장로의 추도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 원주민 연사 한 명이 하디 장로가 교회의 관리 평의회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선교부로서는 참으로 큰 손실이라고 슬퍼하며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카우리 부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걱정할 게 없습니다. 카우리 부장이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십이사도 정원회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총관리 역원 중에 우리의 대표자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투마우키 카우리는 이 말이 우연한 말이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전에도 주님의 영감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수차 목격하였습니다. “이들 원주민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합니다. 그들은 어떤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적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의심하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그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같은 방향으로 앞을 보라”

나는 최근에 우리 스테이크의 어느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의 주인 남자는 몹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눈과 입 뿐이었습니다. 그는 말도 하고 볼 수도 있었으나 그게 고작이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을 잃었습니다. 그의 가정, 그의 침대보, 그 자신까지도 모두 하얀 백지장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손에도 힘이 없어 보였으나 그의 아내가 그의 손을 꼭 감싸 붙잡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육신의 손으로 꼭 붙잡고 있을 때 만큼 강한 영의 결속을 느끼지 못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되돌아가 상대를 만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이미 진정한 사랑이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앉아 있는 옛날식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삶에 뜻깊은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랑으로, 여러분이 결혼 제단 앞에서 일어서서 둘이서 같은 방향으로 영원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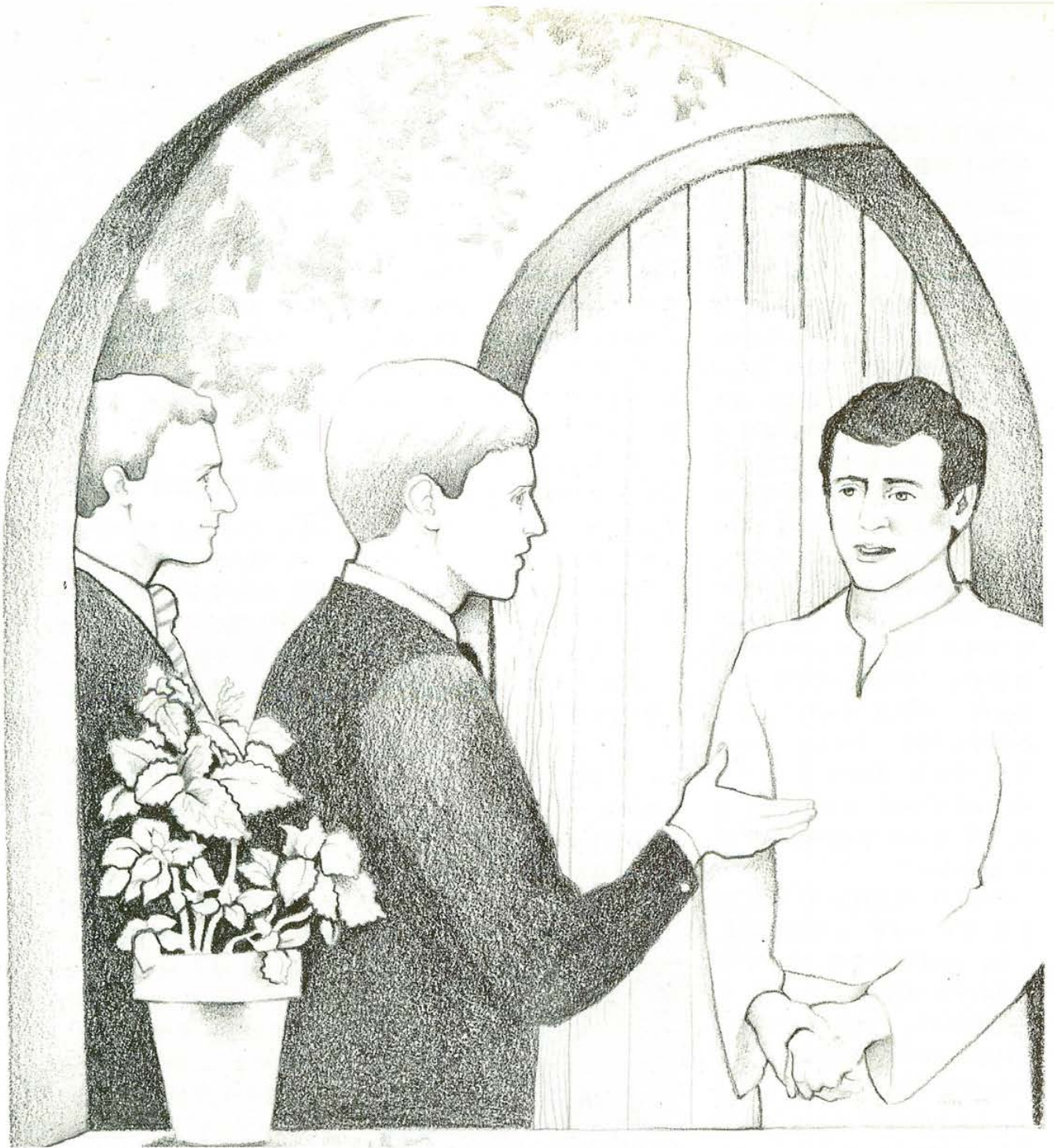
마오리 사람들은 그의 아내에



대해서 “타쿠 호아 와히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동반자인 아내”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타쿠 호아 타네” 즉 “나의 동반자인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라고만 말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게 들립니다. “나의 동반자 아내”나 “나의 동반자 남편” 동반자라는 말은 하나의 방향으로 영원히 전진한다는 뜻을 내포해 줍니다.

“정말로 멋진 일이 아닙니까?”

그분(하나님)은 훌륭한 동업자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인생에 그와 같은 동업자를 얻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그분과 같은 사람이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동업을 청한다면 기꺼이 사업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자 내가 사업을 시작할 자금을 대겠오. 모든 축복도 아울러 드리겠오. 당신이 사업을 운영해 가시오. 그러나 나를 잊진 마시오. 이익이 생기면 당신이 90퍼센트를 차지하고 10퍼센트만을 돌려 주시오. 90퍼센트는 당신 몫이니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나는 10퍼센트를 다시 사업에 투자하겠오” 자 정말로 멋진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갖는 동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90퍼센트를 마음대로 쓰게 되어, 어떤 때는 우리를 망치는 일까지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동업자에게 10퍼센트를 주나 그분은 여기에 신전도 세우시고 저기에 태버나클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모두를 다시 사업에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복음의 원리에 순종할 때 이 교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십니다. ㉠



개종 이야기

화비오 클라비호

오펙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실화로, 화비오 클라비호 형제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한 이야기입니다. 화비호 형제는 남미 콜롬비아의 원주민으로, 그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교회에 개종하였습니다. 그는 최근에

콜롬비아에서 2년간의 선교 사업을 마쳤고, 현재 브리감 영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나는 대다수 국민이 국교를 신봉하는 일을 첫째로 삼는 종교적인 환경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신부가 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나는 다섯 형제 중 세째로 우리 나라에서는 장남을 교회로 보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만형은 신학교에서 7년간을 공부하였으나 결혼하기 위해서 그곳을 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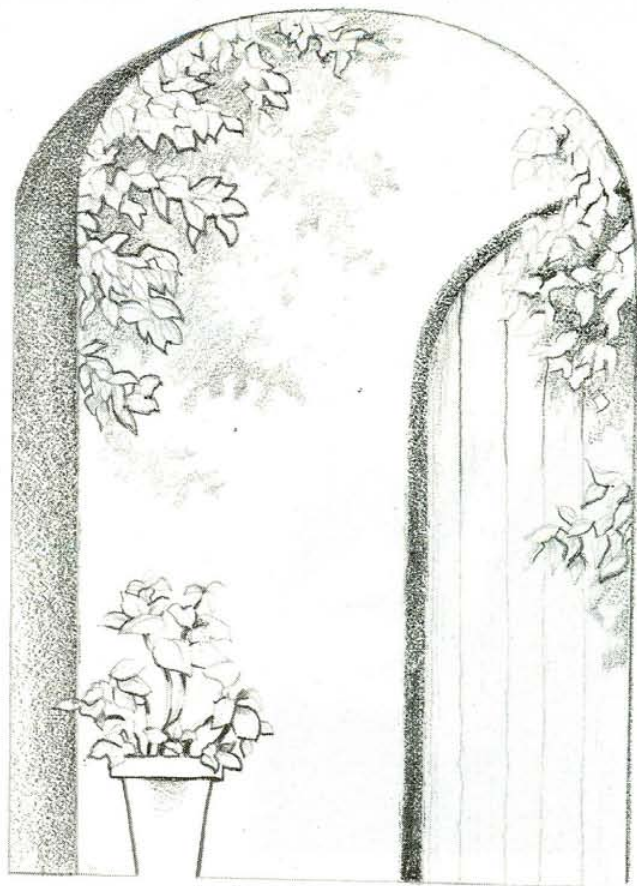
나오고 말았습니다. 형에게서 크게 실망한 가족들은 내가 신학교에 가겠다는 결심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나, 나는 결국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형처럼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1963년에 신부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신학교에 들어 갔습니다.

어느 날 나는 독일에 편지를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다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멋진 카드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전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나의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나는 카드의 내용을 읽지도 않고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이삼 일 후 나는 옷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뒤져 보다가 그 카드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카드가 멋있기에 꼭 간직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모조리 읽어 보았습니다. 그것을 읽고 나서 나는 “그런 걸 밌다니 이 사람들은 돌았군”하며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카드 위에는 말일성도와 로스앤젤리스 신전이라고 적혀 있었고 두 곳의 주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미 지역의 주소이고, 하나는 미국 본부의 주소였습니다. 나는 말일성도가 물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에 베다섯 아내를 거느리고 일부다처를 실시하는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물문경에 대한 이들의 신앙개조에 감명을 받아 안테스 선교부에 편지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 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내고 신학교로 다시 돌아 와 그후 모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여동생이 나에게 편지와 이상한 집꾸러미를 하나 가지고 면회를 왔습니다. 나는 집꾸러미를 풀어 물문경을 꺼냈습니다. 그 편지는 현재 콜롬비아에는 선교사가 없으므로 내가 좀더 교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콜롬비아에 선교부가 개설되는 즉시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또한 그동안 내가 물문경을 읽도록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무슨 편지냐고 물었을 때 나는 친구에게서



온 편지라고 말하고 그녀가 떠난 후에야 집꾸러미를 풀어 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학습 시간에도 성경으로 덮어가며 그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나홀만에 모사이야서까지 읽었습니다.

7월에 여동생이 다시 면회를 왔고 몇몇 미국인이 나를 찾아 왔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미국인이라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 책도 잊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다시 찾아 오면 내 전화번호를 알려 주도록 동생에게 일렀습니다. 며칠 후 그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물론 선교사이며,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신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간청했고 나는 하는 수 없이 다음 날 나를 방문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찾아

오면 선교사란 말을 하지 말고 친구라고만 말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른 대로 했고 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토론을 한 후 크게 감명을 받았으나 그들에게 “난 종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옳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들은 내게 물문경을 읽고 기도를 드릴 것을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기도하기가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때 나의 교회가 옳다고 믿었고, 정말로 신부가 되겠다는 마음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나는 웬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물문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선교사가 다시 찾아 왔을 때는 벌써 모로나이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두 번째 토론을 가르쳤고 나는 이번에도 역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신학교를 빠져 나가 말일성도의 모임에 참석해 보았



입니다. 참석한 회원 수는 적었으나 나는 훌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는 계속해서 방문했고 그러는 동안 나는 다섯 번째로 복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침례를 받겠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물문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한 것”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좀 실망한 것 같았으나 그들은 또다시 물문경을 읽고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번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좀더 알고 싶으면 내가 전화를 하겠노라고 말하고 나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신부가 되는 게 소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간증을 갖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즉시 선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을 하는 도중 나는 그들에게 내가 아직 미성년자이며, 가족은 모두 내가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서면 허락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음

니다. 나는 선교사에게 아버지 사무실의 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찾아 가서 나에게 침례를 주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태도가 진지함을 보시고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물문이 되든 말든 개의치 않겠지만 물문이 되었다간 집에 들어 올 생각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1967년 9월 6일 몹시 추운 날 어느 수영장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셨으나 내가 말일성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은 지 2주만에 지부 서기로 부름을 받았으며, 15세 된 나에게서는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는 2년 동안 서기직을 맡아 일했습니다. 나는 나의 회원 증서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콜롬비아에서는 처음으로 침례를 받은 몇 명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 년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

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굶주림으로 또한 생필품을 살 돈마저 떨어져 고등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유했으나 내가 물문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 것도 남겨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 나는 미국으로 건너 왔으며, 아이다호주 렉스버그에 있는 리스 카리지에 입학했고, 여기서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나라 콜롬비아에 가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곳의 회원은 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2년간을 봉사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민족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많은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는 1973년 8월에 선교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나는 브리감 영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되고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였다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圖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계보 탐구가 얻는 축복과 영감

호이트 파머

호이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보상을 계보 연구하는 중에 찾곤 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금식과 기도가 죽음의 장막 저편에서 구원의 의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도 필요한 도움을 가져다 줄 때 느끼는 보상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몸으로 지상 생활을 했을 때와 같이 무덤 저편 세상에서 실제로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태어나 살다 죽었는지 알고 있으며, 그들의 부모나 가족이 누구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계보 연합에는 그들도 도와려고 애를 쓰는 살아 있는 후손들에게 그들이 도움을 준 사실에 관한 기사가 수없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계보 전문가인 거투루드 토드 작

자 : 계보협회 도시실에서 기록제출자가 마이크로필름 해독기를 사용하고 있다.

우 : 화강암 기록 보관소에는 30미터롤의 마이크로필름이 800,000 개이상 보관되어 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매는 남편의 조부인 에이브라함 토드의 가족을 찾으려고 수 년간이나 노력하였으나 헛수고만 하였습니다. 에이브라함 토드는 1850년 영국 노포크, 혼세트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의 이름이 알려졌을 뿐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토드 자매는 실마리를 풀어 줄만한 곳이나 사람에게서는 수차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녀는 계보 도서관에서도 며칠을 보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녀는 그때까지 받은 모든 편지를 책상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그녀는 금식을 하고 주님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는 순간 그녀는 철해 놓은 서류의 걸장에 낀 검은 색 글씨로 인쇄된 감리교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석에서 영국 혼세트, 감리교회 대표에게 또 다른 편지를 썼습니다.

곧 답장이 왔으며, 같은 날 그 감리교 대표자가 접촉한 은퇴한 목사인 에이브라함 토드의 조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에이브라함

의 누이였습니다.

선조의 기록을 그토록 찾아 헤매던 토드 자매가 받은 그 기쁨과 고마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서신 연락으로 선조에 관해 매우 필요한 자료를 많이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쁨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빨리 손을 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연구와 탐구를 계속했고 지금까지 얻은 실마리를 근거로 잃은 가족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조카인 목사도 알지 못하는 수잔이란 이름의 어린 소녀가 빠져있었습니다. 수잔의 이름은 가족이나 주나 교회의 기록에서도 찾지 못했으나 다른 마을에서 온 인구조사서에서 발견되었고, 그 마을에 토드 가족이 일시 살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은 가족이 마침내 함께 인봉을 받게 되었으며, 토드 자매는 만족스런 느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류의 걸장에 적혀있던 감리교라는 글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혼세트에서 가족 기록서를 발견하고 그 기록을 대조해 본 후의 일이었음



니다.

리다 프린스 자매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임종하시는 계보 전문가인 아저씨의 뒤를 이어 자기가 리다 가족의 계보를 탐구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대신에 아저씨가 돌아가신 선조를 찾아 주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으며 그의 사촌인 해롤드 비리 장로로부터 그녀가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돌아가신 선조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거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인 제일 존슨 형제가 증조모의 가계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게 되자 리다가 자기에게 약속된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놀라움에 응답되었습니다. 그녀가 잠이 든 후 한밤중에 검은 양복을 입은 청년이 찾아와 그녀의 침대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고 들은 바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녀에게 “마론 존슨-선조와 후손”이란 이름이 붙은 책을 보여 주었습니다. 책 끝장 속에는 “뉴저어지, 리틀타운 1775-1857”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밝히지 않은 이 사자는 그녀에게 “이 책에 조모의 기록이 담겨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계보 도서실에는 그 책이 없었으나 국회 도서실에 그것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다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프린스 자매의 아들도 다른 한 권의 책을 구

했는데, 그 책의 저서 목록에서 “핏츠 랜돌프가의 전설”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린스 자매는 이 책도 구했으며, 이 두 권의 책에서 존슨가와 그의 친척 500가정의 가족 기록서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26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 가는 직계 선조의 가계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계보 협회 부집행 위원이며 저명한 계보 전문가인 헨리 크리스찬슨씨는 선조가 “뉴욕에서 살던 화란인”이라고 믿는다는 한 사람의 부탁을 받고 도서관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틀정착민에 관한 모든 자료를 뒤졌으나 아무런 참고 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어디를 살필까를 몰라 망설이다가 우연히 “펜실베이니아의 화란 정착민”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500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은 색인이 없었으며 특별한 항목을 찾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전혀 배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다시 갖다 훑고 다음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을 다시 지날 때 또 시선이 그 책에 머물렀으며, 그는 한번 더 보아야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서서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빼들다가 그만 책을 놓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받쳐 들다 작은 책상위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책은 떨어지면서 펼쳐졌고, 그는 퍼진 페이지를 손으로 들어 살펴 보려다가 손가락 끝에서 그가 그때까지 찾던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린 왈키스트 자매와 남편인

마크 형제는 모린의 선조가 살았던 미시시피주 치카소군을 수차 찾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와 믿음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그때마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69년 계보 탐구 때 그들은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왈키스트 자매의 외조부를 찾으러 떠난 그 여행에는 멤피스에 사는 그녀의 아버지까지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휴스턴 법정에서 유언장을 검토할 수 있는 허락을 얻었으나 그들이 찾고자 하는 사람의 성이 그 명부 색인에는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뒤적여 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심코 서류 실험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특별히 장정된 책을 한 권 꺼내 들었습니다.

실험이 열리면서 몇장 종이가 마루에 떨어졌습니다. 이종의 한 장이 그들이 찾던 증조부의 이름이 있는 토지 이전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다른 참고할 만한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왈키스트 형제가 실험을 다시 닫으려고 들어 밀 때 잘 맞지 않아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가 실험 뒤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가 뒤로 돌아가서는 다른 문서를 꺼내었습니다. 그것은 왈키스트 자매 증조부의 유언장이었으며, 그의 아내와 아홉 자녀의 이름과 다른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호이트 파머 형제는 저명한 계보 전문가로 현재 솔트레이크 버틀러 웨스트 스매이크, 버틀러 제 10와드 제사 그룹 지도자 보조로 수고하고 있다.

엘리아의 권세

만일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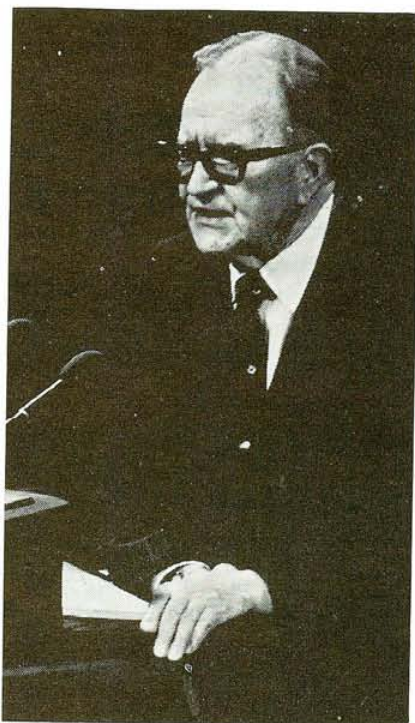
엠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있었던 행사를 온마음을 다해 지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지명을 받은 이들에게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지지와 충성심을 드립니다.

구약 성서는 많은 위대한 예언자들에 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권능을 지녔던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는 디셉 사람 엘리아(왕상 17:1 참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이르신 대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기근 동안 그는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 가는 그릿 시냇가(왕상 17:5 참조)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사르밧(왕상 17:9 참조)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곳에 그에게 음식을 제공할 과부를 두셨다고 이르셨습니다. 엘리아는 이 성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 이 과부를 만나 음식을 청하였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열왕기상 17:12)

이에 엘리아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녀가 자기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결코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보잘 것 없이 보이는 한 사람의 약속에 자기와 아들의 목숨을 맡긴 이 여인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그 여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빵을 굽고 그에게 대접하였으며, 곧 예언자의 다음과 같은 약속이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



데오도르 엠 버튼 장로
십이사도 보조

와께서 엘리아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왕상 17:16)

엘리아의 권세가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처럼 중요하다면 그가 소유한 영적인 권세는 어떠하였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지상의 일을 묶어 인봉하고 하늘과 맺어 주며, 지상의 일을 풀어 하늘의 것과도 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도 사악해지매 그는 하늘이 닫히게 하여 비가 내리지 않게 했으며,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의 권세가 무력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인 후에야 비를 내려 주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멸망하고 겸손해진 뒤에 엘리아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 기근

을 멈추어 주었습니다. 이 인봉의 힘은 찬탄하고 성스러운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예언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인봉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있는 지 일주일 후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변형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아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이들 사도에게 찬탄한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이 부여되었습니다. 일라이어스란 그리스 말로 엘리아를 뜻합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인봉의 열쇠를 쥔 엘리아는 이것을 신약 시대의 선지자에게 맡겼습니다. 신권에는 큰 질서가 있으며, 권능의 열쇠를 이양하는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주의 깊게 행해 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이 권능이 한 번 회복되었으므로 모든 후대의 선지자들에게 계승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18)

많은 사람이 일라이어스의 권능과 엘리아의 권능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아로 더 잘 알고 있는 일라이어스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데저렛 출판사, 1957-66, 3권, 138-41페이지)이 일라이어스라는 이름의 직분은 선구자 혹은 먼저 알리는 자라는 뜻을 가진 직분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가진 자는 다음에 올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오는 예비자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예언자에게 일라이어스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열 두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에게 일라이어스가 먼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은 일라이어스가 먼저 온다고 가르치셨고, 이 교리는 틀림없이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칩레 요한이 그의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일라이어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알아 보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비자가 온 다음에 벨기세택 신권을 이스라엘 백성에 인봉할 권능을 지닌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권세를 지닌 우리 구세주 이시요 구속주이신 메시야가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권 회복의 전조로 아론 신권의 권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라이어스로서 칩레 요한이 왔습니다. 그다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와서 대신권인 벨기세택 신권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베드로의 말처럼 때가 찬 말일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행 3:21)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영광과 권세로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인봉의 권세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미리 예비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말라기가 한 예언이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보내진 모로나이가 한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2편)

이 성구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표준경전 4권 어느 곳에서도 다 인용되는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예언된 대로 인봉의 열쇠를 안고 왔습니다. 그러한 신권의 열쇠는 변형의 산에서 처럼 완전한 질서와 조화 속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한 신권의 열쇠를 지닌 각 예언자는 그러한 열쇠를 지상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회복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일라이어스도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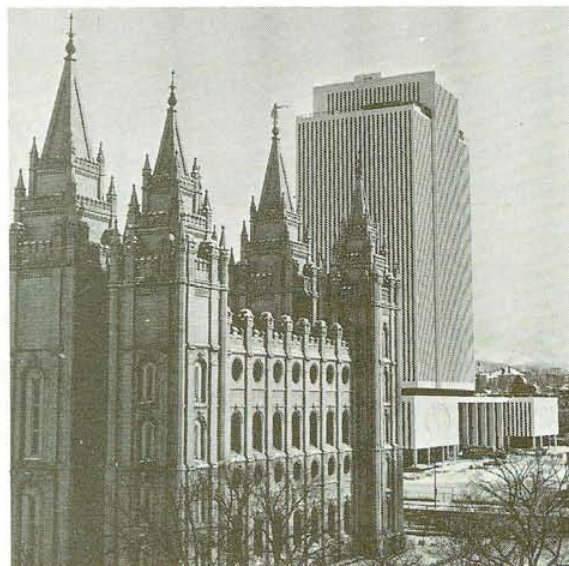
“보라, 진실로 그 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라기의 입으로 이야기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르기 전에 저(엘리야)가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얻어 맞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너희 손에 맡기노라.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 실로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리라.”(교리와 성약 110:14-16)

이러한 예언은 성취되어 과거의 신권의 권능이 다시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신권이 세워져 모든 신권 의식이 신앙을 가진 의로운 생활을 한 합당한 자에게 집행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위대한 신권 사업을 진행하도록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축복사일 가정의 가족을 하나로 단합시켜 합당하게 생활할 때 육신을 가진 부활한 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해의 영광에 들어 갈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다시 회복된 이 신권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지상의 가족으로 인봉되며, 그 인봉이 하늘에서도 효력을 발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 있는 가족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선조들을 위해서도 구원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한 과부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약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자기가 가진 마지막 식량을 기꺼이 바쳤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엘리야가 지녔던 것과 같은 충만한 신권을 지니신 현대 예언자의 지시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영적인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재력을 함께 바쳐야 하겠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지상에서 매게 하며, 하늘에서도 매게 할 수 있는 이 인봉의 열쇠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 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솔트 레이크 신전과 교회 본부 건물

소년에겐 성인 남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소년은 다 훌륭한 성인 남자로
부터 값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매리온 디 햄스
십이사도 보조



소 이 자리에 제시 청소년이 나 성인되시는 여러분께서 검색 가죽 잠바를 입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의사가 어느 날 밤 친구인 다른 의사로부터 한 어린 아이를 수술하게 되었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으나 이 의사는 가능한 빨리 도착하려고 속력을 내어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정지 신호대에 왔을 때 검색 가죽 잠바를 입은 사람이 차문을 열더니 마치 주머니 속에 총이라도 넣고 위협을 주려는 듯이 그의 옆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몹시 흥분된 상태로 그 의사의 차를 요구했고, 이유를 길게 설명할 만큼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검색 가죽 잠바를 입은 사람이 황급히 차를 몰고 사라지자 이 의사는 고속도로에 혼자 서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의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몇 분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를 초청한 의사는 함께 가서 그 소년의 아버지 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전하자고 했습니다. 이들이 대기실에 들어 서자 아버지되는 사람이 다가 왔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검색 가죽 잠바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

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혹은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원치 않아서 도울 길을 막고 있는 검색 가죽 잠바를 입은 사람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밤 이 모임은 하나님 왕국에 속한 수많은 신권 소유자가 참석해서 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는 성인 세계로 발돋움하는 소년들에게 교회가 참된 성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뜻깊은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가장이 가정용 비우는 일이나 소년들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는 아버지상이나 아버지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은 오늘날 사회가 당면하는 심각한 고민 거리라고 봅니다. 나는 교회의 가정과 교회 내에 있는 신권 지도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한 소년의 가치는 하나님만이 아시나 우리도 역시 가장이며, 우리가 갖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소년은 자기 자신에게만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개인은 자기를 만들어 준 모든 과거를,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잠재력을 지닌 자신을 태우고 다니는 합승차와도 같으며, 그는 그외에도 자신 속에 미래의 씨앗

을 품고 다니면서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언젠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며, 그는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크고도 성스러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소년들은 성인 남자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큰 목표를 줄 수 있고 사교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건설적이며, 사내다운 기질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활동을 이해하며, 성인 남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모범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어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가장은 힘의 근원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가장으로부터 축복 받은 소년은 참으로 행복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그러한 가정도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선량한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보충적인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나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바를 주지 못하는 아버지인 경우엔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가장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감독, 보좌, 고문, 교사, 소년단장, 지도자, 가정 복음 교사, 코우치 등 정말로 도울 수 있는 강한 분들을 주셨습니다. 만일 주님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만 운영된다면 교회에 속한 소년은 누구라도 훌륭한 성인들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사

실상 모든 소년은 자기를 걱정하고 돌봐 주는 훌륭한 성인 남자를 몇 명씩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훌륭한 와드에 속해 있는데, 우리 와드에는 훌륭한 성인 형제님들이 계셔서 내 아들과 그들이 지도하는 다른 많은 소년에게 큰 관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소년들을 지도하는 데 훌륭한 어머니와 다른 여성들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남자를 만드는 데는 남자만큼 훌륭한 교사가 없다고 봅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없으며, 그러한 일을 단독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나 다른 어떤 단체도 이를 해낼 수 없습니다. 소년에게 성인 남자가 필요합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가장이나 성인 남자되시는 분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와드나 지부라도 성인 남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년이 있으며 성인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돌봐 주기를 바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소년들에게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선량한 가장이나 양심적인 성인 남자로부터 소년들이 필요한 바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무지하고 미숙한 많은 점들을 그대로 배우거나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인품이나 성품에서가 아니라 육체적이고 성적이며 금전적인 행위로 성공의 기준을 판단하는 길가의 친구나 학교의 나쁜 친구로부터 좋지 못한 일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형제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밤에는 시간 관계로 수많은 대답 가운데서 한 가지만 골라 변죽만을 울릴 수 밖에 없겠으나 그것이 매우 중요한 대답이 되므로 꼭 이해하셔야 합

니다.

물론경 엘마서 36장에는 모든 아버지요 가장의 직을 맡은 사람에게 주는 훌륭한 교훈이 실려 있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멘에게 회개와 신앙에 관한 강한 간증을 들려 주었습니다. 엘마는 젊은 시절의 한 때를 '반향 속에서 지냈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 자기가 범한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게 되고 그가 당한 격심한 고통이나 시련을 겪지 않고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을 통해 엘마는 그가 겪은 고통을 증거하였고, 모든 아버지라면 다 그의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아들 힐라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밤 나는 그것을 내 아들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1. "보라, 나의 아들 힐라멘이여, 네가 아직 젊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서 모두를 배우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전져 주실 것이요 마지막 날에 높이 들어 올리시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이라.

"그러나 그러한 일을 스스로 알았던 것이라고 네가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노니,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하여 알게 되었고 속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알게 되었느니라."(엘마서 36:3-4)

그런 다음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내가 맛본 무한한 기쁨을 저들이 또한 맛보게 하며, 저들도 역시 하나님께로 태어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해 왔느니라.

"보라 내 아들아 주님께서는 나의 수고의 결실로 무한히 큰 기쁨을 내게 주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려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나 내가 맛본 것을 맛보며 내가 본 대로 대면하여 본거라, 내가 이야기한 바를 나처럼 알며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음이라."(엘마서 36:24-26)

그러나 이상의 말씀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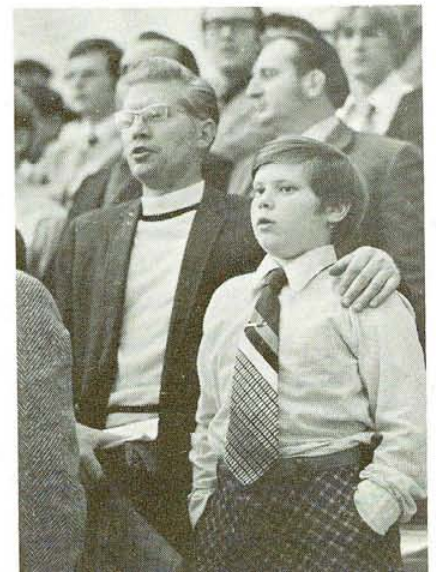
3. "그러나 나의 아들아, 이것이 또한 모두는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너희도 알아야 하리니, 너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엘마서 36:30)

이렇게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간증하였습니다.

우리가 얻은 복음의 지식과 간증을 우리 자녀에게 주지 않고 자기 마음 속에 품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만 전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그러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소 검색 잠바를 입은 그 사람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물론경 중의 많은 훌륭한 가르침이 아버지로부터 사랑하



는 아들에게 직접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리하이, 야곱, 베냐민, 엘마, 힐라멘, 물론 기타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게 훌륭한 교훈을 직접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엘마의 아들 코리엔톤과 그가 저지른 비참한 과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다른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신도 거만해지고 교집이 썩으며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엘마는 아들의 행동이 몹시 그릇되다는 것을 알아 회개하라고 이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가르쳤으며, 그에게 따를 길을 제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이르사, 네 자녀들에게 명하여 선을 행하게 하여 저들도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게 하라 하셨기로, 나의 아들과 내가 네게 명하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떠나라.”(엘마서 39:12)

죄인을 돕기 위해 준 이 훌륭한 교훈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들이 부도덕한 짓을 행하며 다닌 곳에서 선교 사업을 하려고 애쓴 성실한 아버지가 말한 다음 말씀을 내가 알고 있기로 가장 슬프고도 마음을 울리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너의 처신을 보고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엘 39:11)

물론 물론경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큰 뜻을 품은 소년들의 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 니파이는 나이는 어렸으나 체격은 컸고 또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심히 알고자 하여 주님께 간구하였느니라. 보라 주께서 내게 입사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며, 나는 부친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던지라...”(니파이일서 2:16)

니파이는 많은 큰 일을 해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사냥 도구를

잃고 굶주리게 되었을 때 불평하지던 아버지를 도와 어려운 처지를 극복했던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니파이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많이 얻은 사람으로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때를 당해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부친께 가서 아들인 자기가 어디로 가야 사냥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쭙어 달라고 함으로써 아버지의 위신과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받게 된 노인은 그의 신앙을 되찾고 그의 가족들을 다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경에 나오는 사소한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실의에 빠져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인생의 어려운 때에 확신과 신앙을 회복시켜 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전은 성인의 세계로 발돋움하는 귀한 청소년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책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힘의 근원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이민은 피오레로 라구아티아라는 사람은 뉴욕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치안판사로 있던 초기에 한 사람이 절도죄로 그의 법정에서 처되었습니다. 이 젊은 판사는 감금형에 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훔쳤다고 설명하자 그는 형의 선고를 중지하고 법정 방청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도시에 사는 죄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일이 법정에서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우리의 젊은이에게 생명의 빵을 먹이지 못했을 때는 교회의 부모나 교사나 성인에게 언

젠가는 그 죄의 대가가 부과될 것입니다.

소년 여러분이나 성인 여러분께서는, 아들이 그토록 바라던 차를 아버지가 그가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 생일 선물로 그에게 주기로 한 자동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엇인가를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부리지 말고 잘 지내면 네가 원하는 차를 생일 선물로 주겠다”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자동차는 소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완비된 멋진 차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무런 말씀을 부리지 않고 그 날을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그가 상상하던 차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리던 모든 시설이 완비된 멋진 차였습니다. 그는 너무도 좋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달려 가 차를 살피고는 아버지에게로 가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열쇠를” 하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열쇠를 달란 말이지 말해 두지만 저 차는 네 거란다. 오래 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해 왔었지. 매우 값지고 소중한 차야. 난 네가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그렇지만 열쇠는 내가 보관한다. 네가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알려 주겠어. 네 친구나 누구에게라도 네 차라고 말하려느냐. 그렇지만 사용은 못해.”

소년들은 약속이나 이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고, 능력을 이용해 보고 신권을 활용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소년 여러분은 이 문제에 따른 큰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주님의 은사로 큰 축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은사를 활용할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존경심,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 봉사 태도, 표현 능력 등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격려해 주고 강하게 하며, 우리를 매우 자랑스럽게 해

줍니다.

며칠 전에 어느 스테이크 부장을 만났는데 그분은 아들의 성적표에 C학점이 있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제로 소년을 데리고 가서 성적표를 보여 주면서 “자 성적표를 좀 봐라. 무엇이 보이니?”하고 엄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A학점이 세 개나 있잖아요”라고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라면 C학점짜리는 물론 보아야 하나, 아들에게는 A학점을 받은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두 사람이 모두 다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두 분의 아버지에 대한 찬찬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소년이 주일학교에서 지명받은 영적인 말씀을 발표하려 연단에 섰는데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읍니다. 이때 키가 큰 아버지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소년 옆으로 걸어가 그의 팔로 소년을 감싸 주며 “저는 우리 레리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곧 발표할 수 있으리라는 걸 압니다. 조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분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레리가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년을 그의 팔로 감싸고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그 소년은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순간을 지켜 본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한 특별한 소년을 만났는데, 이번 주에 나는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근육 위축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소년으로 워드 모든 사람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읍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지금 일급 소년 단원이며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이라는 이 소년은 집사일 때 다른 집사 소년들처럼 성찬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서거나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축을 받아야 했으며, 성찬기조차 자기 힘으로는 들 수 없어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성찬을 전달할 수 있게 성찬기와 제이를 부축하였습니다. 제이는 집사로서 금식 헌금을 수집하는 일도 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금식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제이는 힘찬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의 태도나 외모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씀 순서도 말았으며, 매우 잘 해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노래도 불렀는데, 이러한 일을 할 때면 언제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옆에 서서 그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보다도 더 아름답고 흐뭇한 광경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정 밖에

서 도움이 필요한 소년들에게 시간을 내어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리고, 인내와 자비심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현재와 앞으로 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특별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게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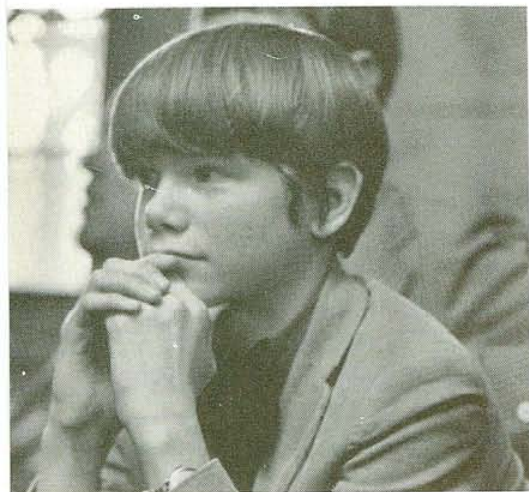
아버지나 신권 지도자나 젊은이 여러분은 따를 수 있는 어떤 모범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분명하고 값진 무언의 설교를 듣고 배우게 됩니다. 젊은이가 어떤 원리나 원칙을 따지고 나서야만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들은 윤리적인 원리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인 인간의 모범을 따릅니다. 그들은 발전시키고 싶은 속성을 분석하거나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속성을 지녔다고 느끼는 사람과 같이 되려 합니다.”(존 가드너 자아 개선, 124페이지) 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인간 관계,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강연이 아니라 조 건없는 사랑, 희생적인 봉사, 경배,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존 재를 믿는 경건한 자세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야 할 모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모로나이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젊은이 여러분께 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하여 나를 비난하지 말며 ...다만 너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어 너희로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물몬서 9:31)

좀더 나아가 드신 분께는 구약 시대의 다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 갈 수 있으리이까...”(창세기 44:3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1974년 4월 7일 일요일 아침 모임

무덤에서 삼일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진보의 문을 열어 주었다.

엘드레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측복사

지난 봄에 나는 아내와 함께 성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마지막 날 우리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동산에 올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곳엔 우리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외경의 느낌이 가득 찼었습니다. 우리는 해골의 언덕이라는 골고다 산상을 한 동안 응시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었던 세 개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유대왕 그리스도”라고 써진 표말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 27:37 참조) “과연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시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리마데 요셉의 소유인 무덤에 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안치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무덤의 문을 닫기 위해 큰 돌을 굴리며 왔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남고 모두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 27:60-61 참조) 병사들이 무덤가에 모여 들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도록 파숫군이 서게 되었습니다.

경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멸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겨져 둘이 되었다”(마 27:51)고 합니다. 그 멸망은 이 대륙에 있었던 멸망보다도 훨씬 컸다고 합니다. 세 시간만에 성이 온



통 파괴되고 사람들이 땅에 묻혔으며 불에 타 죽었습니다. 성이 있던 곳에 산이 솟았습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쳤고, 암흑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세 시간 동안 계속된 대파괴가 끝나고 암흑이 천

지를 감싸고 있는 상태가 사흘간 계속되었으며, 이들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었느니라. 내가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 인하여 아버지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백성에게로 왔으며 저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올 것에 관하여 기록된 경전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니파이삼서 9:15-16) 그는 백성들이 사악해졌으므로 멸망이 이를 것이며, 다만 의로운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후 올 때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들에게 회개하면 받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그가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피흘리는

것으로 내게 제물로 하지 말지니 너희의 희생 제물과 번제를 폐하라. 내가 너희들의 희생 제물과 번제를 폐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희생 제물과 번제를 용납치 아니 하리라.

“또한 너희가 내게 제물을 바치되,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라...”(니삼 9:19-20)

그는 또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두 차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마 9:13, 12:7)

그의 육신이 무덤에 있을 때가 행한 주요한 다른 활동은 이미 죽은 자의 영을 만나 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

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5)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를 믿는 도적에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

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벧전 3:18-20)

이것은 위대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죽은 후에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4:6)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육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는 이 대륙의 백성에게 희생의 제물을 폐한다는 말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음성이 들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가 그때까지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 다시 돌아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일은 그가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천사가 내려와 닫혔던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아내와 함께 그 동산을 걸으면서 그곳에 놓였던 돌



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무덤의 입구는 언덕에서 수직으로 깎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작은 문이 있었는데 앞에는 큰 돌이 굴러 와 문을 닫게 되도록 풀이 파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그 주 첫날 아침 몸에 뿌릴 향로를 가지고 왔을 때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 가자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천사는 이 두 여인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달려 와 보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요한이 먼저 와 무덤 주위를 살폈으나 베드로가 온 후에야 무덤 안으로 들어 가 보았습니다. 시체는 온데 간데 없었으나 몸을 찢던 천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이에 요한과 베드로는 다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 20 : 9)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

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요한복음 20 : 11-17)

무덤에 함께 간 다른 여인도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알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으며 그는 그들에게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마 28 : 9)

그들은 여기서도 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알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도마와 자살한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을 다 만나 보았습니다. 후에 그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 : 29)

그는 모든 제자와 갈릴리의 500명 앞에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미대륙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셨

습니다. 물론경은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이서 동산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무덤 안에도 들어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느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 : 27)

우리는 그때 그곳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 : 25)라고 마르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의 영원한 진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영원히 걸어야 할 길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서부 뉴욕에 있는 성스러운 숲을 처음 방문해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찌기 숲속을 걸으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어린 요셉 스미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살아 계시며, 지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영광으로 오실 때를 대비하여 지상에 그의 왕국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이해심을 주시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關

1975년은 역사적인 해

선교부장 유진 피 털

1975년은 한국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서는 실로 역사적인 해라 하겠읍니다. 오는 8월에는 한국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땅으로 헌납한 곳 근처에 위치한 장소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대회가 개최됩니다. 교회의 예언자요, 계시자인 대관장을 비롯, 그분의 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다수와 총관리 역원이 참석하게 됩니다. 선교부, 스테이크 산하의 와드, 지부의 지도자들은 이미 대회를 위한 확고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와드에서는 주일날 오후 시간을 내어 와드 구역내의 회원, 비회원의 가정을 방문, 한국 대회의 일정을 광고하거나 교회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 간에 걸쳐 벌어질 대회 준비에는 실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한국 서울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서 한국 성도 여러분이 이번 8월 대회에 친구, 친척을 데리고 나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부에서도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 매스콤을 통하여 대회 광고에 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는 데는 교회 회원이 직접 일대일로 전하는 방법을 따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한국을 교회의 지역 대회를 제일 먼저 갖는 나라의 하나로 정하게 하신 것을 크신 축복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의 노력으로 이 나라가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75년에는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성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 및 사회 인사를 만나 가정의 밤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사나 시장을 만나는 경우 가족 주간이나 가정의 달 등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입니다. 또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선교사 연예 그룹 뉴 호라이즌과 텐더 애플즈 합창단을 이용,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가정의 밤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광주의 방문자 센터를 이용하여 주로 가정에 대한 포스터를 전시하며 가정의 밤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선교사에게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가정의 밤 접근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975년에는 각 지방부, 지부, 와드에서 소속 회원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복음 선교사로 내보낸다는 목표를 성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언자께서 보다 활발한 선교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 세계의 회원에게 정해주신 목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1년을 보내면서 회원 동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모든 회원이 가급적이면 자주 이 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지방부와 지부에 질서를 세운다는 목표도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는 선교부 산하의 지방부, 지부에 필요한 역원을 모두 보충하여야 가능해 집니다. 저는 교회의 지도자되시는 여러분이 직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975년에는 교회 모임에 경전을 갖고 참석하였으면 합니다. 회원 모두가 주일학교, 신권회, 성찬식에서 경전을 참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읍니다.

1975년 마지막 목표로 교회 회원 모두가 계획적인 경전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진리를 다 포용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회원은 배우고 익혀야 하며 참으로 값진 것을 배우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읍니다.

1975년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던 성공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퍼는 의로운 노력에 매진하시는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주님이 같이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교회 회원 여러분,

다음은 대관장단이 교회 회원에게 보낸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미 늦은 감이 있으나 내용의 중요함에 비추어 이곳에 실었습니다.

성스러운 절기를 맞아 교회 회원은 다음에 인용한 구세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기 네 형제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40)
세계 어디를 가나 기아와 고통에 떠는 사람의 수는 실로 많습니다. 앞으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여야 하지만 우선 자기가 사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에게 보 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두가 다음에 열거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월례 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이는 적어도 하루에 두 끼를 금식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식비 또는 그 이상을 감독 또는 지부장에게 헌납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케 하는 것을 뜻합니다.

2. 가족을 위하여 식량 1년분을 확보한다. 무엇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관하여 신중히 생각하고 믿을만한 자료를 구합니다. 아울러 저장 과정에 있어서 지역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에너지를 절약한다. 약 1년 전에 부탁드린 자가용의 합승, 속도 제한 엄수, 실내 온도의 저하, 불필요한 전력, 연료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4. 음식의 낭비를 막는다. 수백만이 굶주리고 있는 반면에 과식으로 음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녀에게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5. 직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고용주가 원하는 것 이상의 실적을 올리십시오. 주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모세 4 : 25) 이 말씀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따라서 일은 불평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6. 건강에 유의한다.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현명하게 먹고 무엇이든 과로한 것은 금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건강 유지에 필요한 습관을 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가족을 강화한다. 매일 가족 기도를 드리며 매주 가정의 밤을 가져야 함은 물론, 가족 모두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피야 합니다. 내적인 힘, 행복, 화평이야말로 지금 이 성탄절에 우리가 경배하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톤 태너

매리온 지 롬니

